

韓国青少年における日本大衆文化の 接触状況にみる受容論議の問題性と課題

目次

はじめに

1. 日本文化接触状況の変化
2. 日本と日本人に対する評価の変化
3. 受容論議の問題性と課題

馬居 政幸

静岡大学 教育学部 教授

はじめに

私は、東義高等学校の関根英行先生や釜山市内の初・中・高校の先生方の協力をえて、釜山、ソウル、大田、光州の5都市で、1996年から2001年までの6年計画で、韓国青少年の間に広がる漫画やアニメを代表とする日本大衆文化の実態とその影響や社会的背景について調査を行っています。特に、その中核が、初等学校5年生、中学校2年生、高等学校2年生に対する「日本大衆文化接触状況」についての質問紙調査です。

そこで、ここでは、96年にスタートし、金融危機に陥った97年と金大中大統領による日本文化開放政策がスタートした98年を経て、昨年の99年までの調査結果から、特に4年間の変化の特性を中心に紹介します。そして、その結果をもとに、韓国における日本文化受容論議の問題性と今後の課題について私見を提示します。

1. 日本文化接触状況の変化（96年～99年）

調査では、韓国青少年の生活の中に日本大衆文化がどの程度広がっているかを明らかにするために、「日本の翻訳漫画」「日本の映画（含むアニメ）」「日本の大衆歌謡」「日本のゲーム」「日本の雑誌・写真集」「日本の衛星放送」「インターネットによる日本文化の接触」の7項目について、接触状況（「ほぼ毎日」「一週間に数回」「半月に数回」「一ヶ月に数回」「数ヶ月に数回」）を質問しました。図1は、各項目について、「ほぼ毎日」から「数ヶ月に数回」まで日本文化に接触したと答えた総割合（総接触度）と「接触したことがない」割合について、96年から99年にかけての変化を示したものです。いずれも、総接触度は金融危機の影響のためか、96年から97年にかけて低下もしくは横ばいで推移しますが、98年から99年にかけてかなりの角度で増加しています。

その中で、「日本の翻訳漫画」は既に96年の段階で83.1%、ほぼ全体に広まっていたといえます。また、「日本の映画（含むアニメ）」は96年では63.2%であったが、99年は73.9%、同様に、「日本のゲーム」も96年65.8%から99年79.7%とほぼ全体に広がる傾向です。また、「日本の大衆歌謡」は96

年20.0%から99年49.7%、「日本の衛星放送」も96年37.0%から99年49.6%と増加し、ともに「接していない」より「接している」方が多数派になりました。

また、「日本の雑誌・写真集」と「インターネットを通じた日本文化の接触」は増加していますが、99年時点では「接していない」が多数派です。しかし、「日本の雑誌・写真集」の場合は、ファッションを代表に、実質的に韓国出版社による雑誌の中に日本文化は含まれています。また、「インターネット」はハードの所有の有無が影響するので、今後はコンピューターの普及とともに急激に増加することが予測されます。

もっとも、上記のデータは、「ほぼ毎日」から「数ヶ月に数回」という広範囲に把握した接触頻度の結果です。そこで、より明確に日本文化の所有の有無を質問した結果を紹介します。それが次の表1です。まず、99年をみると、「韓国漫画の単行本」を所有しているのが46.9%に対して「韓国語に翻訳された日本漫画の単行本」が45.0%とほぼ同じ。「翻訳されていない日本漫画の単行本」を所有する者も17.2%います。

私が調査を始めた90年代前半では、日本漫画の方が韓国漫画よりもはるかに人気がありました。

しかし、現在は韓国の若い作家により、日本漫画よりも優れた作品が生み出されています。このことは今後の日本文化受容問題を考える上で非常に重要と思います。

次に「歌謡」の場合、「韓国歌謡テープ」が85.3%、「韓国歌謡CD」が70.0%に対して、「日本歌謡テープ」は20.3%、「日本歌謡CD」20.6%と少数派。しかし、漫画と異なり、歌謡テープやCDは厳格に輸入が禁止されていたことを考えれば、この数値は低くはないでしょう。今後、文化開放の進捗とともに漫画と同様の傾向を迎えることも予測されます。

また「韓国語に翻訳された日本漫画ビデオ」が26.1%に対して、「韓国語に翻訳されていない日本漫画ビデオ」は15.3%、「日本のビデオドラマテープ」も15.7%です。数値的には少数派でも、「翻訳されていない」という条件を考えるなら、低い数値とはいえないでしょう。また、「翻訳された」ビデオの場合も、漫画ビデオという商品の特性から、四人に一人が所有するということをどう評価すべきでしょうか。

他方、「韓国のゲームソフトプログラム」が55.4%に対して、「日本のゲームソフトプログラム」は40.7%。この二つだけは96年と99年で所有率が逆転しています。これは漫画と同様に韓国側におけるゲームソフト開発力を反映したものでしょう。

「日本のファッション雑誌」の16.4%、「日本の女性写真集」の15.6%の場合は、いずれも未翻訳の漫画やビデオと同様の傾向としてとらえられるでしょう。それに対して、「日本の学用品」を70.4%が所有。「日本でつくられた服」も28.2%、四人に一人以上が所有。また、98年から調査項目に加えた「日本のキャラクター商品」は56.1%から65.1%と急激に所有者が増加しています。日本の子どもや若者をひきつける商品が、ほぼリアルタイムで韓国の子どもや若者の間に広がる傾向にあることを示唆する数値でしょう。

では、これらがどのような影響を与えるかを、日本と日本人に対する評価についての中高校生の意識の変化についての調査結果を紹介しながら考えてみます。

2. 日本と日本人に対する評価の変化

図2は、日本と日本人への評価に関する26項目の中高校生への質問結果を、肯定派（そう思う＋どちらかといえば）と否定派（そう思わない＋どちらかといえば）に別けて集計し、四年間の変化をグラフにしたものです。

まず全体として、数値の差はあるものの、96年から99年にかけての4年間で、どの項目も肯定的派が増加し、否定派が減少しています。またその変化の傾向から、「肯定と否定の割合が逆転した項目」、「肯定と否定の差が少なかったが、肯定が増加し否定が減少した項目」、「否定が多かったが、肯定が増加、否定が減少し、差が縮小した項目」、「ほとんど変化していない項目」の4種に分けられます。それを99年度調査結果の肯定度の高い順に並べ替え、4年間の増減（変化率）とともに一覧表にしたのが表2です。

まず、「（1）肯定と否定の割合が逆転した項目」と「（2）肯定と否定の差が少なかったが、肯定が増加し否定が減少した項目」の欄から、この4年間、とりわけ経済危機から文化開放へと変化した98年以後、韓国の青少年のなかに日本、日本人、日本文化への積極的で肯定的評価を伴った意識が形成されていることが読み取れます。特に、「（1）」を構成する項目は、「日本への旅行」「日本語の勉強」「漫画等を自由に」を代表に、身近で具体的な行動と直接結びつく内容です。先に確認した韓国青少年の世界への日本文化の広がりと平行（反映→相関）する意識と位置づけられるでしょう。

他方、差が縮小したとはいえ、否定派が今なお多い「（3）」を構成する項目から、不信任感もまた根強いことが確認できます。特に、このグループは、「（1）」と異なり、日本や日本人に対する一般的なイメージを問う内容のため、調査対象者の中学生や高校生の段階では抽象度が高く、自分の経験を基に判断することが難しいかもしれません。しかし、それだけに、韓国社会に常識として存在する価値意識の反映とみなすことができます。

しかし、この「（3）」にも変化があります。96年では否定派が過半数の項目は11項目中8項目、それも70～80%と圧倒的多数派でした。ところが、99年では5項目にへり、その割合も50%代です。加えて、「敵対感」、「親密感」、「韓国人より才能優れる」「西欧人より好き」「日本企業に就職」はいずれも慎重派がこの4年間で10ポイント以上増え、肯定できないが否定もできない層が増加していることが読み取れます。

さらに、このような中高校生の回答傾向は、今後の日本と日本人への評価が変化する方向として位置づけられないでしょうか。少なくとも、先に紹介した接触状況についての調査結果と重ねて理解するなら、次のことを指摘できると考えます。

- Ⅰ. 韓国青少年の世界に、日本の同年代の子どもや若者の文化が、リアルタイムで広がる基盤が既に成立しています。
- Ⅱ. そのことと平行して、韓国青少年の日常経験と結びつく行動や文化のレベルでは、日本と日本人に対する肯定的かつ積極的な興味や評価が高まる傾向にあります。
- Ⅲ. その意味で、日本文化開放施策は、個別的な開放方法や内容あるいは進行度の問題とは別に、少なくとも日本文化や日本人への拒否感を和らげる契機になっています。

これらの傾向をふまえて、日本文化受容論議の問題性と課題について私見を提示しておきます。

※「3.受容論議の問題性と課題」は次回に続けて連載いたします。

図1 日本に関連するものへの接触頻度の変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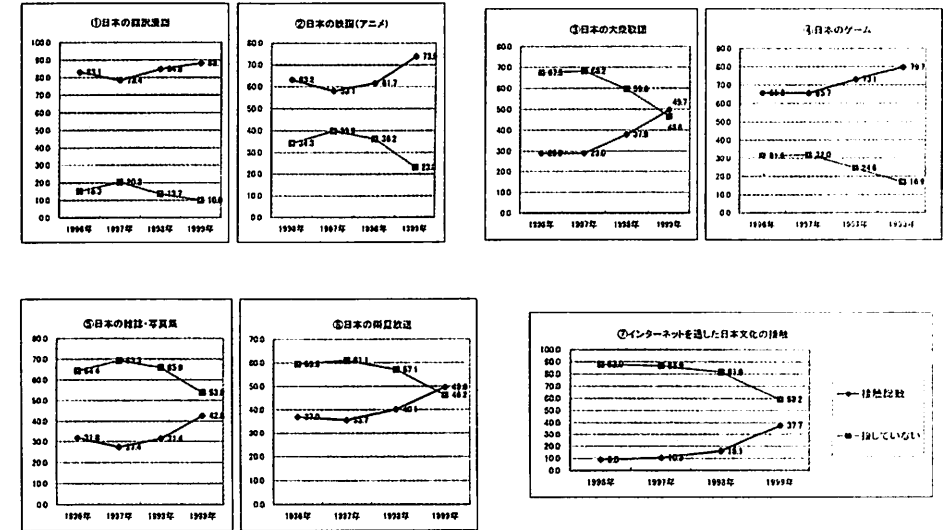


表1 所有している割合

	1996年	1997年	1998年	1999年
①韓国語学習の単行本	45.0	45.5	44.5	46.9
②韓国語に翻訳された日本漫画の単行本	41.2	38.9	41.3	45.0
③韓国語に翻訳されていない日本漫画の単行本	10.4	12.1	11.8	17.2
④韓国歌テープ	84.5	85.1	88.2	85.3
⑤韓国歌CD	53.1	56.0	64.1	70.0
⑥日本歌テープ	11.4	12.2	15.5	20.3
⑦日本歌CD	8.4	10.4	13.6	20.6
⑧韓国語に翻訳された日本漫画ビデオ	13.9	17.5	19.6	26.1
⑨韓国語に翻訳されていない日本漫画ビデオ	7.3	9.7	11.2	15.3
⑩日本のビデオドラマテープ	6.7	11.1	11.5	15.7
⑪韓国のゲームソフトプログラム	26.2	46.2	48.3	55.4
⑫日本のゲームソフトプログラム	34.7	28.2	33.1	40.7
⑬日本のファッション雑誌	11.6	12.1	12.5	16.4
⑭日本の女性写真集	9.2	10.2	13.9	15.6
⑮日本の学習用品	67.3	69.4	67.0	70.4
⑯日本で作られた服	21.9	23.1	24.3	28.2
⑰日本のキャラクター商品			56.2	65.1

*数値は1つ以上持っている人の割合（%）

表2 「日本や日本人に対する評価」の〔肯定派〕、〔否定派〕、〔慎重派〕の4年間における変化率

項目	肯定派		否定派		慎重派
	96→99	変化率	96→99	変化率	変化率(99)
① 15) 日本に旅行に行きたい	42.1→58.9	+16.8	44.2→22.5	-21.7	+2.5(13.4)
7) 勤勉で優れた資質を持った国	32.5→43.7	+11.2	45.0→27.6	-17.4	+3.8(23.5)
18) 日本でしばらく生活してみたい	42.2→55.1	+12.9	44.8→24.7	-20.1	+5.0(15.0)
22) 日本語を勉強したい	38.7→54.5	+15.8	46.1→23.9	-22.2	+4.5(16.5)
26) 日本文化や漫画等自由に接したい	27.7→47.5	+19.8	54.2→28.4	-25.8	+3.9(19.3)
19) 日本人と友達になりたい	27.0→46.3	+19.3	54.7→28.7	-26.0	+4.7(19.9)
23) 両国の関係をよくするために努力したい	35.1→46.9	+11.8	41.8→23.6	-18.2	+4.4(24.6)
24) 日本の文化を学びたい	24.0→40.8	+16.8	56.6→30.9	-25.7	+6.7(23.2)
35) 日本の技術を学びたい	33.6→38.1	+4.5	50.0→33.4	-16.6	+10.0(23.2)
② 1) 国民にバイタリティがあり将来性のある国	42.8→51.9	+9.1	35.4→23.5	-11.9	+0.3(19.7)
4) 韓国の発展のために協力の必要な国	40.7→49.7	+9.0	39.0→24.7	-14.3	+3.8(21.1)
③ 12) 日本や日本人に強い関心がある	27.1→34.3	+7.2	53.1→40.0	-13.0	+4.0(20.6)
* 3) 将来、韓国の存在を脅かす国	48.7→39.7	-9.0	31.1→33.7	+2.6	+4.7(21.9)
* 11) 日本人に対して強い敵対感を感じる	51.5→33.6	-17.9	30.0→33.5	+3.5	+12.1(27.8)
21) 日本人と一緒に仕事をしたい	15.8→28.2	+12.4	65.9→42.8	-23.1	+8.4(23.7)
16) 日本の大学や大学院に行きたい	12.6→24.4	+11.8	71.3→48.7	-22.6	+8.3(21.6)
14) 中国人より日本人が好き	14.3→23.6	+9.3	62.6→43.6	-19.2	+7.4(27.6)
10) 日本人に対して親密感を感じる	9.7→19.8	+10.1	75.0→50.5	-24.5	+12.0(24.0)
8) 国民の才能が韓国人より優れている	15.0→19.2	+3.4	66.9→50.4	-16.5	+10.9(25.4)
13) 西欧人より日本人が好き	6.3→18.9	+12.6	78.5→51.1	-27.4	+12.4(24.6)
17) 日本企業に就職したい	10.9→18.8	+7.9	75.5→54.2	-21.3	+10.7(21.7)
5) 一般的に国民の考え方が韓国と同じ	10.1→14.7	+4.6	72.0→58.8	-13.2	+6.2(21.3)
④ * 2) 経済が衰退し国力が弱くなる	28.3→23.2	-5.1	46.1→41.9	-4.2	+7.3(30.3)
* 6) 理解できない不可解な国	38.1→31.9	-6.2	37.5→36.4	-1.1	+5.1(26.3)
* 9) 韓国は将来日本と対等になる	48.3→46.8	-1.5	27.5→21.9	-5.6	+5.0(26.2)

注1 〔肯定派〕、〔否定派〕は、図5参照。〔慎重派〕は、「どちらとも言えない」の割合。

注2 「変化率」は、99年と96年の差を算出したもの。

注3 *は、否定的イメージに対する質問で、肯定と否定が逆転する。

※ 図2は次回に連載いたします。

한국 청소년의 일본 대중문화 접촉 상황에서 보이는 수용 논의의 문제성과 과제

목차

들어가며

1. 일본 문화 접촉 상황의 변화
2. 일본과 일본인에 대한 평가 변화
3. 수용 논의의 문제성과 과제

우마이 마사유키

시즈오카대학 교육학부 교수

들어가며

필자는 동의대학교 세키네 히데유키 교수와 부산 시내 초·중·고교 교사들의 협력을 구해, 부산, 서울, 대전, 광주 등 5개 도시에서 1996년부터 2001년까지 6년 계획으로 한국 청소년 사이에 퍼져있는 만화와 애니메이션으로 대표되는 일본 대중문화의 실태와 그 영향, 사회적 배경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그 중핵은,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일본 대중문화 접촉상황」에 대한 질문지조사이다.

그 가운데 여기에서는 96년에 시작하여 금융위기에 빠졌던 97년과 김대중 대통령에 의한 일본 문화개방정책이 시작된 98년을 거쳐, 작년 99년까지의 조사결과에서 특히 4년간의 변화의 특성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근거로 한국에서의 일본 문화 수용 논의의 문제성과 급후 과제에 대해서 사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일본 문화 접촉 상황의 변화(96년~99년)

조사에서 한국 청소년의 생활 가운데 일본 대중문화가 어느 정도 퍼져있는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번역된 일본 만화」 「일본 영화(애니메이션 포함)」 「일본 대중가요」 「일본 게임」 「일본 잡지」 「일본 위성방송」 「인터넷」을 통한 일본 문화 접촉 등 7개 항목에 대해 접촉 상황 「거의 매일」 「일주일에 수차례」 「보통에 수차례」 「일개월에 수차례」 「수개월에 수차례」를 질문하였다. 그림1은 각 항목에 대해서 「거의 매일」에서 「수개월에 수차례」까지 일본 문화에 접촉했다고 답변한 총비율(총접촉도)과 「접한 적이 없다」는 비율에 대해, 96년부터 99년에 걸친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어느쪽이든 총접촉도는 금융위기의 영향인지, 96년부터 97년에 걸쳐 저하되거나 보합 상태이지만, 98년에서 99년에 걸쳐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가운데 「번역된 일본 만화」는 이미 96년 단계에서 83.1%로, 거의 전체에 퍼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일본 영화(애니메이션 포함)」는 96년에는 63.2%였지만, 99년에는 73.9%, 마찬가지로 「일본 게임」도 96년 65.8%에서 99년 79.7%로 거의 전체로 퍼지는 경향이다. 그리고 「일본 대중가요」는 96년 20.0%에서 99년 49.7%, 「일본 위성방송」도 96년 37.0%에서 99년 49.6%로 증가하였으며 더불어

「접하고 있지 않다」보다 「접하고 있다」는 쪽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일본 잡지·사진집」과 「인터넷을 통한 일본 문화 접촉」은 증가하고 있지만, 99년 시점에서는 「접하고 있지 않다」가 대다수이다. 하지만 「일본 잡지·사진집」의 경우는 패션을 비롯하여 한국출판사에 의한 잡지 가운데 일본 문화가 실질적으로 포함되어져 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일본 문화 접촉」은 하드의 소지 유무가 영향을 미치므로, 앞으로의 컴퓨터 보급과 더불어 급격하게 증가하리라고 예상된다.

단, 상기 자료는 「저의 매일」에서 「수개월에 수차례」라는 광범위하게 파악된 접촉 빈도 결과이다. 따라서 보다 명확하게 일본 문화의 수용 유무를 질문한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것이 다음의 표1이다. 먼저 99년을 보면 「단행본 한국 만화」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46.9%인데 비해 「한국어로 번역된 단행본 일본 만화」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45.0%로 거의 같다. 「번역되지 않은 단행본 일본 만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17.2% 있다.

필자가 조사를 시작한 90년대 초반에는, 일본 만화가 한국 만화보다도 훨씬 인기가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한국의 젊은 작가들에 의해 일본 만화보다도 뛰어난 작품들이 나오고 있다. 이는 급후의 일본 문화 수용 문제를 생각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다음으로 「가요」의 경우, 「한국 가요 테이프」가 85.3%, 「한국 가요 CD」가 70.0%인데 비해 「일본 가요 테이프」은 20.3%, 「일본 가요 CD」가 20.6%로 소수이다. 하지만 만화와는 달리 가요테이프나 CD는 엄격하게 유입이 금지되어 있던 점을 생각해 보면 이 수치는 적다고 볼 수는 없다. 앞으로 문화 개방 진행과 더불어 만화와 같은 수준까지 다다를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한국어로 번역된 일본 만화비디오」가 26.1%인데 비해 「한국어로 번역되지 않은 일본 만화비디오」는 15.3%, 「일본 비디오드라마테이프」도 15.7%이다. 수치적으로는 소수이더라도 「번역되지 않았다」는 조건을 생각하면, 낮은 수치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번역된」 비디오의 경우도, 만화비디오라는 상품의 특성상, 네 명에 한 명 꼴로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한편, 「한국 게임 소프트웨어프로그램」이 55.4%인데 비해 「일본 게임 소프트웨어프로그램」은 40.7%. 이 두가지만은 96년과 99년에 소유율이 역전되고 있다. 이는 만화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게임소프트 개발력을 반영한 것이다.

「일본 패션 잡지」의 16.4%, 「일본 여성 사진집」의 15.6%의 경우는 양쪽 모두 번역되지 않은 만화나 비디오와 같은 경향으로 생각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해 「일본 학용품」을 70.4%가 소유, 「일본에서 만들어진 옷」도 28.2%가 가지고 있어 네 명에 한 명 꼴로 소유하고 있다. 또한 98년부터 조사항목에 추가한 「일본 캐릭터상품」은 56.1%에서 65.1%로 급격하게 소유자가 증가하고 있다. 일본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을 끌어들이는 상품이 거의 동시간대에 한국 어린이들과 젊은이들 사이에 퍼지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하는 수치인 것이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일본과 일본인에 대한 평가에 대해 중·고교생들의 인식 변화에 대한 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일본과 일본인에 대한 평가 변화

그림2는 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한 일본과 일본인에의 평가에 관한 26개 항목의 질문 결과를, 긍정파(그렇게 생각한다+비교적 그렇게 생각한다)와 부정파(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그다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로 나

뉘 집계하고 4년간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먼저 전체적으로 수치의 차는 있지만, 96년부터 99년에 걸쳐 4년간 모든 항목에서 긍정파가 증가하고 부정파는 감소하고 있다. 또 그 변화 경향에서 「긍정과 부정의 비율이 역전한 항목」, 「긍정과 부정의 차는 적었지만, 긍정이 증가하고 부정이 감소한 항목」, 「부정이 많았지만, 긍정이 증가하고 부정은 감소하여 그 차가 줄어든 항목」, 「거의 변화하지 않은 항목」등 네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그것을 99년도 조사 결과에서 긍정도가 높은 순으로 재배치하여 4년간의 증감(변화율)과 더불어 일람표로 정리한 것이 표2이다.

우선 「(1) 긍정과 부정의 비율이 역전한 항목」과 「(2) 긍정과 부정의 차는 적었지만, 긍정이 증가하고 부정이 감소한 항목」란에서 이 4년간, 무엇보다 경제위기에서 문화개방으로 변화한 98년 이후, 한국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본, 일본인, 일본 문화로의 적극적인 긍정적인 평가를 수반한 의식이 형성되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특히 「(1)」을 구성하는 항목은 「일본 여행」, 「일본어 공부」, 「만화 등을 자유롭게 접하고 싶다」가 대표적으로, 신변적이고 구체적인 행동과 직접 연관되는 내용이다. 앞에서 확인한 한국 청소년 세계에의 일본 문화의 확산과 평행(반영—상관하는)의식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차이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부정파가 지금도 많은 「(3)」을 구성하는 항목에서 불신감 또한 뿌리 깊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 그룹은 「(1)」과는 달리 일본과 일본인에 대한 일반적인 이미지를 묻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사 대상자인 중·고교생 수준에는 추상도가 높고 자신의 경험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려웠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만큼 한국 사회에 상식으로 존재하는 가치의식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3)」에도 변화가 있다. 96년에는 부정파가 과반수인 항목은 11개 항목 가운데 8개 항목으로, 그것도 70~80%라는 압도적 다수파였다. 하지만 99년에는 5개 항목으로 줄었고 그 비율도 50% 수준이다. 게다가 「일본인에게 강한 적대감을 느낀다」, 「일본인에게 친밀감을 느낀다」, 「국민의 재능이 한국인보다 뛰어나다」, 「서구인보다 호감이 간다」, 「일본 기업에 취직하고 싶다」라는 항목은 모두 신중파가 지난 4년간 10포인트 이상 늘어나서, 긍정할 수 없지만 부정도 할 수 없다는 층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중·고교생들의 답변 경향은 앞으로 일본과 일본인에 대한 평가가 변화하는 방향으로서 볼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앞서 소개한 접촉 상황에 대한 조사 결과와 더불어 이해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적할 수 있다.

1. 한국 청소년 세계에서 일본 같은 세대의 어린이나 젊은층의 문화가 동시간대에 확산되는 기반이 이미 성립되고 있다.
2. 그와 평행하여, 한국 청소년들의 일상 경험과 관련된 행동과 문화 수준에서 일본과 일본인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흥미와 평가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3. 그러한 의미에서 일본 문화개방 시책은 개별적인 개방 방법과 내용 혹은 진행도의 문제와는 별도로, 적어도 일본 문화와 일본인에의 거부감을 완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을 바탕으로 일본 문화 수용 논의의 문제성과 과제에 대해서 사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수용 논의의 문제성과 과제는 다음호에 계속해서 연재합니다.

「접하고 있지 않다」보다 「접하고 있다」는 쪽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일본 잡지·사진집」과 「인터넷을 통한 일본 문화 접촉」은 증가하고 있지만, 99년 시점에서는 「접하고 있지 않다」가 대다수이다. 하지만 「일본 잡지·사진집」의 경우는 패션을 비롯하여 한국출판사에 의한 잡지 가운데 일본 문화가 실질적으로 포함되어져 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일본 문화 접촉」은 하드의 소지 유무가 영향을 미치므로, 앞으로의 컴퓨터 보급과 더불어 급격하게 증가하리라고 예상된다.

단, 상기 자료는 「거의 매일」에서 「수개월에 수차례」라는 광범위하게 파악된 접촉 빈도 결과이다. 따라서 보다 명확하게 일본 문화의 수용 유무를 질문한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것이 다음의 표1이다. 먼저 99년을 보면 「단행본 한국 만화」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46.9%인데 비해 「한국어로 번역된 단행본 일본 만화」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45.0%로 거의 같다. 「번역되지 않은 단행본 일본 만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17.2% 있다.

필자가 조사를 시작한 90년대 초반에는, 일본 만화가 한국 만화보다도 훨씬 인기가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한국의 젊은 작가들에 의해 일본 만화보다도 뛰어난 작품들이 나오고 있다. 이는 금후의 일본 문화 수용 문제를 생각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다음으로 「가요」의 경우, 「한국 가요 테입」이 85.3%, 「한국 가요 CD」가 70.0%인데 비해 「일본 가요 테입」은 20.3%, 「일본 가요 CD」가 20.6%로 소수이다. 하지만 만화와는 달리 가요테입이나 CD는 엄격하게 유입이 금지되어 있던 점을 생각해 보면 이 수치는 적다고 볼 수는 없다. 앞으로 문화 개방 진행과 더불어 만화와 같은 수준까지 다다를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한국어로 번역된 일본 만화비디오」가 26.1%인데 비해 「한국어로 번역되지 않은 일본 만화비디오」는 15.3%, 「일본 비디오드라마테입」도 15.7%이다. 수치적으로는 소수이더라도 「번역되지 않았다」는 조건을 생각하면, 낮은 수치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번역된, 비디오의 경우도, 만화비디오라는 상품의 특성상, 네 명에 한 명 꼴로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한편, 「한국 게임 소프트웨어프로그램」이 55.4%인데 비해 「일본 게임 소프트웨어프로그램」은 40.7%. 이 두가지만은 96년과 99년에 소유율이 역전되고 있다. 이는 만화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게임소프트 개발력을 반영한 것이다.

「일본 패션 잡지」의 16.4%, 「일본 여성 사진집」의 15.6%의 경우는 양쪽 모두 번역되지 않은 만화나 비디오와 같은 경향으로 생각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해 「일본 학용품」을 70.4%가 소유, 「일본에서 만들어진 옷」도 28.2%가 가지고 있어 네 명에 한 명 꼴로 소유하고 있다. 또한 98년부터 조사항목에 추가한 「일본 캐릭터상품」은 56.1%에서 65.1%로 급격하게 소유자가 증가하고 있다. 일본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을 끌어들이는 상품이 거의 동시간대에 한국 어린이들과 젊은이들 사이에 퍼지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하는 수치일 것이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일본과 일본인에 대한 평가에 대해 중·고교생들의 인식 변화에 대한 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일본과 일본인에 대한 평가 변화

그림2는 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한 일본과 일본인에의 평가에 관한 26개 항목의 질문 결과를, 긍정파(그렇게 생각한다+비교적 그렇게 생각한다)와 부정파(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그다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로 나

눠 집계하고 4년간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먼저 전체적으로 수치의 차는 있지만, 96년부터 99년에 걸쳐 4년간 모든 항목에서 긍정파가 증가하고 부정파는 감소하고 있다. 또 그 변화 경향에서 「긍정과 부정의 비율이 역전한 항목」, 「긍정과 부정의 차는 적었지만, 긍정이 증가하고 부정이 감소한 항목」, 「부정이 많았지만, 긍정이 증가하고 부정은 감소하여 그 차가 줄어든 항목」, 「거의 변화하지 않은 항목」등 네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그것을 99년도 조사 결과에서 긍정도가 높은 순으로 재배치하여 4년간의 증감(변화율)과 더불어 일람표로 정리한 것이 표2이다.

우선 「(1) 긍정과 부정의 비율이 역전한 항목」과 「(2)긍정과 부정의 차는 적었지만, 긍정이 증가하고 부정이 감소한 항목」란에서 이 4년간, 무엇보다 경제위기에서 문화개방으로 변화한 98년 이후, 한국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본, 일본인, 일본 문화로의 적극적인 긍정적인 평가를 수반한 의식이 형성되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특히 「(1)」을 구성하는 항목은 「일본 여행」, 「일본어 공부」, 「만화 등을 자유롭게 접하고 싶다」가 대표적으로, 신변적이고 구체적인 행동과 직접 연관되는 내용이다. 앞에서 확인한 한국 청소년 세계에의 일본 문화의 확산과 평행(반영—상관)하는 의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차이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부정파가 지금도 많은 「(3)」을 구성하는 항목에서 불안감 또한 뿌리 깊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 그룹은 「(1)」과는 달리 일본과 일본인에 대한 일반적인 이미지를 묻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사 대상자인 중·고교생 수준에는 추상도가 높고 자신의 경험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려웠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만큼 한국 사회에 상식으로 존재하는 가치의식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3)」에도 변화가 있다. 96년에는 부정파가 과반수인 항목은 11개 항목 가운데 8개 항목으로, 그것도 70~80%라는 압도적 다수파였다. 하지만 99년에는 5개 항목으로 줄었고 그 비율도 50% 수준이다. 게다가 「일본인에게 강한 적대감을 느낀다」, 「일본인에게 친밀감을 느낀다」, 「국민의 재능이 한국인보다 뛰어나다」, 「서구인보다 호감이 간다」, 「일본 기업에 취직하고 싶다」라는 항목은 모두 신중파가 지난 4년간 10포인트 이상 늘어나서, 긍정할 수 없지만 부정도 할 수 없다는 층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중·고교생들의 답변 경향은 앞으로 일본과 일본인에 대한 평가가 변화하는 방향으로서 볼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앞서 소개한 접촉 상황에 대한 조사 결과와 더불어 이해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적할 수 있다.

- I. 한국 청소년 세계에서 일본 같은 세대의 어린이나 젊은층의 문화가 동시간대에 확산되는 기반이 이미 성립되고 있다.
- II. 그와 평행하여, 한국 청소년들의 일상 경험과 관련된 행동과 문화 수준에서 일본과 일본인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흥미와 평가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 III. 그러한 의미에서 일본 문화개방 시책은 개별적인 개방 방법과 내용 혹은 진행도의 문제와는 별도로, 적어도 일본 문화와 일본인에의 거부감을 완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을 바탕으로 일본 문화 수용 논의의 문제성과 과제에 대해서 사건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수용 논의의 문제성과 과제는 다음호에 계속해서 연재합니다.

韓国青少年における日本大衆文化の 接触状況にみる受容論議の問題性と課題



馬居 政幸

静岡大学 教育学部 教授

目次

はじめに

1. 日本文化接触状況の変化

2. 日本と日本人に対する評価の変化

3. 受容論議の問題性と課題

* 前号の続きです。

3. 受容論議の問題性と課題

1) 現実への覚めた認識を

まず最初に指摘したいことは、日本文化に関する論議は、いかに受容するかではなく、既に韓国社会のなかに再生産システムや流通システムを伴って広く浸透しているという現実認識から始める必要があるということです。

誤解を恐れずにいえば、韓国での日本文化の受容に関する論議は、韓国社会に現に存在する日本文化の実態を無視したものになっていないでしょうか。あるいは、論議の対象とする場合も、マイナス評価を前提に行われる傾向が強くなかったでしょうか。

その背景に、歴史に起因する日本文化へのマイナスイメージがあり、その解消の責任を日本の研究者として避けるつもりはありません。しかし今後は、そのような立場を相対化する視点が必要と考えます。

理由は、韓国青少年のあいだに日本を外国の一つとして位置づけ、その文化を積極的に選択する意識と行動が、一定の合理性を有して育まれていることを見失う危険性があるからです。同時にそのことは、韓国社会に根ざした新たな文化の創造の可能性を無視することになるからです。

このことは漫画、アニメ等の日本の大衆文化を積極的に受容すべきであるということではありません。

むしろ逆です。私は、日本の教育研究者として、現在の日本の文化とりわけメディアを通じて大量に供給される世界に対して、生産・流通システムも含めて、その問題性を深く憂慮しています。だが、それだからこそ、現に流入し拡大する日本の文化の実態とその韓国青少年への影響、あるいはそれを要求する社会的ニーズや供給システムの問題を把握するためにも、覚めた視座が重要になることを強調しておきます。

2) 日本文化を相対化し、異文化としての位置づけを

そのためには、プラスであれマイナスであれ、日本文化に特権的位置を与えるべきではありません。世界の様々な文化の一つとして相対化し、異文化として位置づけることから始める必要があります。

そのこととかかわって指摘しておきたいのは、単に日本文化というだけでなく大衆文化という記号の持つマイナスイメージもまた相対化すべきと考えます。

文化と文化の間、また文化内部における価値のヒエラルキーを一度は括弧に置いて、あらゆる文化を等価におき、それを選択し用いる人たちにとっての意味と価値を問いなおすことが重要ではないでしょうか。もちろん、これは全ての文化を平等に受入れよという意味ではありません。今と未来に向けて、いかなる文化を価値あるものとするかを考察するためにも、その問いや答えを求める方法をオープンにすべきと考えるからです。

さらに、もう一つの理由は、いかに特定の文化を上位もしくは下位に位置づけ、その流入を制限しようとしても、情報化の波はそのボーダーを越えていく、という現実が進行しているからです。衛星放送やインターネットの普及による日本文化への直接的アプローチが一般化することにより、文字通りボーダーレスな世界の問題として、国境を前提とした受容論議は過去のものにならざるをえません。

加えて、日本でもいまIT革命が流行語になっていますが、韓国の青少年の世界にコンピューターが普及する速度は、日本の現状をはるかに超えるものであることを改めて指摘しておきます。その意味で、情報化に関する限り、日本は韓国を追う立場にあることを認めざるをえません。だが、それは情報化に伴う問題もまた、日本よりも早く生じる可能性があることも指摘せざるをえません。

問題は日本文化ではなく韓国文化です。それも次の時代と社会を担う子どもたちの世界の変化です。

3) 日本文化の受容ではなく韓国文化の再構築の視点からの論議を

すなわち、問うべきは、日本文化をいかに受容するかではなく、いま育ちつつある韓国の子どもたちが求める文化とは何か。あるいは、必要なのはなにか。そして、今と未来の韓国社会を構成する新たな文化の再構築への課題は何か、ということではなければならないと考えます。その選択肢のなかに日本、香港、台湾、中国、シンガポール、アメリカ・・・の文化もあるということです。

少なくとも、私がこれまで実施して調査研究から、韓国社会が工業化から情報化の段階に移行し、子どもたちの社会的形成の過程に生じつつある新たな課題とかかわって、日本の子どもや若者が選択（消費）する文化が韓国の同世代の人たちにも積極的に選択（消費）されていることを指摘せざるをえません。その意味で、日本文化受容論議において、日本文化の受容の可否ではなく、なぜ韓国青少年が日本文化を積極的に選択するかを、日本の青少年の現状と比較しつつ検討する必要があるのではないのでしょうか。

すなわち、日本文化をそれを担う人と分離してとりあげるのではなく、韓国青少年の社会的形成にとっていかなる文化が適恰的なかを、彼ら彼女らが現に選択（消費）する世界を内面的に考察・評価する視座から論議すべきと考えま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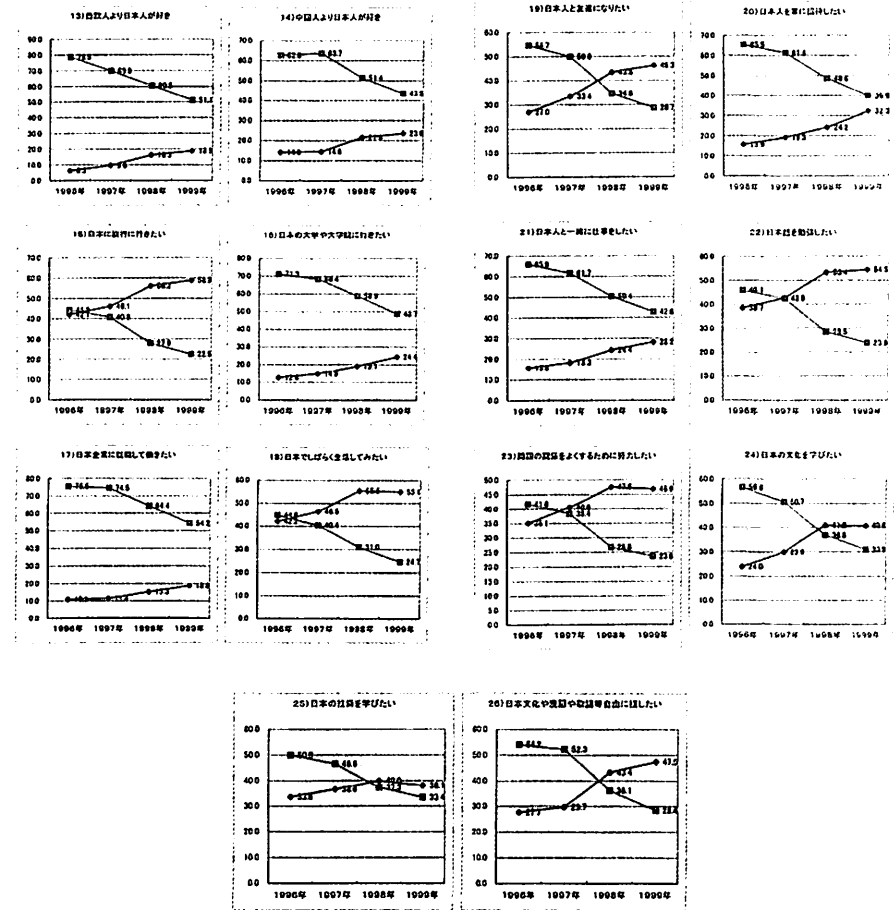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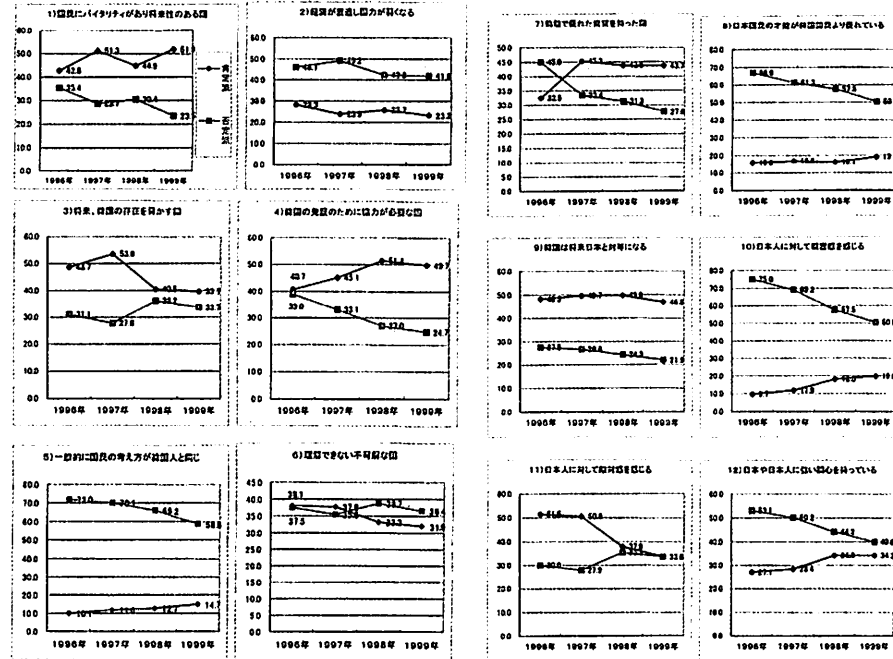
さらに、文化の再構築の問題とかかわって、やはり先に紹介しましたが、日本漫画や日本製ゲームの流入が、若干のタイムラグをともなつて、韓国漫画や韓国製ゲームの質の高まりと量の拡大を誘引していること

も指摘しておきます。今後、日本歌謡と韓国の歌謡が類似した道を辿ることが予測されます。すなわち、一時的に日本歌謡の占有率は高まっても、早晩、韓国歌謡の質と量双方の次元での高まりを誘引して、結果としては韓国文化の再構築への契機を用意することになるのではないのでしょうか。

もちろん、このような視点は、韓国文化と日本文化のみでなく、世界のさまざまな文化との間に生じることであり、韓国青少年の問題のみでなく、韓国の地で生活するさまざまな人々との関係において論じらるべき課題でもあることを確認しておきます。

最後に、上記の観点はあくまで東アジアの世界が西欧社会に起源を有する工業化の波を被ったあと、グローバル化した情報化の波を受けることにより、改編を余儀なくされている子どもとりわけ思春期における人間の社会的形成の問題を、韓国と日本の現状の比較分析をふまえて考察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私自身の問題意識に基づくものです。その意味で、このような立場自体の問題や他の立場からの問題もあることを前提に提示したものであることを示すために、問題性という言葉を用いたことを最後に断っておきます。

図2 「日本や日本人に対する評価」の（肯定派）と（否定派）の変化率



注 (肯定派)は、「そう思う」と「どちらかといえばそう思う」の合計値
(否定派)は、「そう思わない」と「どちらかといえばそう思わない」の合計値

※ 図2は前号の内容です。

한국 청소년의 일본 대중문화 접촉 상황에서 보이는 수용 논의의 문제성과 과제

우마이 마사유키
시즈오카대학 교육학부 교수

목차

들어가며

1. 일본 문화 접촉 상황의 변화
2. 일본과 일본인에 대한 평가 변화
3. 수용 논의의 문제성과 과제

* 前號에 이어

3. 수용 논의의 문제성과 과제

1) 현실에 자극한 인식

일본 문화에 관한 논의는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한국 사회 속에 재생산시스템이나 유통시스템을 따라 넓게 침투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인식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음을 가장 먼저 지적하고 싶다.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하자면, 한국에서의 일본 문화 수용에 관한 논의는, 현재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일본 문화의 실태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마이너스 평가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지는 않았는가?

그 배경에는 역사에서 기인하는 일본 문화에 대한 마이너스 이미지가 있고, 그를 해소해야 하는 책임도 일본 연구자로서 회피할 마음은 없다. 하지만 금후에는 그러한 입장을 상대화하는 시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한국 청소년 사이에서 일본을 하나의 외국으로 생각하고 그 문화를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의식과 행동이 일정한 합리성을 가지고 키워지고 있음을 간과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그것은 한국 사회에 뿌리내린 새로운 문화의 창조 가능성을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만화, 애니메이션 등 일본 대중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반대이다. 필자는 일본의 교육연구자로서, 현재 일본의 문화 특히 미디어를 통해 대량으로 공급되는 세계에 대해, 생산·유통시스템을 포함하여 그 문제성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이 아말로 현재 유입·확대되는 일본 문화의 실태와 한국 청소년에의 영향, 혹은 그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요구와 공급시스템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껴어있는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 두고자 한다.

2) 일본 문화를 상대화하여 다른 문화로서 인식을

이를 위해서는 플러스이든 마이너스이든, 일본 문화에 특권적 위치를 부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세계의 다양한 문화 가운데 하나로써 상대화하고, 타문화로 자리 매김 하는 것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다.

그 점과 관련하여 지적해 두고 싶은 것은, 단순히 일본 문화뿐만 아니라 대중문화라는 기호를 가진 마이너스 이미지도 또한 상대화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문화와 문화 사이, 또는 문화 내부에 있는 가치 계층을 한번에 괄호에 넣어 모든 문화를 같은 가치에 두고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 묻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물론 이는 모든 문화를 대등하게 받아들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현재와 미래를 향해 어떠한 문화를 가지 있는 것이라 할지 고찰하기 위해서라도, 그 질문과 답을 구하는 방법을 개방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또 하나의 이유는 아무리 특정 문화를 상위 혹은 하위라고 순위를 매기고 그 유입을 제한하려고 하더라도, 정보화 물결이 그 장벽을 넘어버리는 현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위성방송이나 인터넷의 보급에 따른 일본 문화에의 직접적 접근이 일반화되면서, 문자 그대로 장벽 없는 세계의 문제로서, 국경을 전제로 한 수용 논의는 과거의 것이 다.

더불어 일본에서도 현재 IT혁명이 유행어가 되었지만, 한국 청소년의 세계에서 컴퓨터가 보급되는 속도는 일본의 현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지적해 둔다. 그런 의미에서 정보화에 관해서만큼은 일본이 한국을 뒤쫓아가는 입장에 있음을 인정해야만 한다. 하지만 정보화에 수반되는 문제 역시 일본보다 빠르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 문화에 관한 논의는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한국 사회 속에 재생산시스템이나 유통시스템을 따라 넓게 침투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인식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음을 가장 먼저 지적하고 싶다.

문제는 일본 문화가 아닌 한국 문화이다. 그것도 다음 시대와 사회를 짊어질 아이들 세계의 변화이다.

3) 일본 문화의 수용이 아닌 한국 문화 재구축의 시점에서 논의를

즉, 일본 문화를 어떻게 수용하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자라나고 있는 한국 아이들이 요구하는 문화는 무엇인가, 혹은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한국 사회를 구성하는 새로운 문화의 재구축에의 과제는 무엇인가를 물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그 선택 문항 속에 일본, 홍콩, 대만, 중국, 싱가포르, 미국 등의 문화도 있다는 것이다.

적어도 필자가 지금까지 실시해온 조사 연구에서, 한국 사회가 공업화에서 정보화의 단계로 이행하고 아이들의 사회적 형성 과정에 계속 생겨나고 있는 새로운 과제와 관련하여, 일본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선택(소비)하는 문화가 한국의 같은 세대 사람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선택(소비)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본 문화 수용 논의에 있어서 일본 문화의 수용 불가가 아닌 왜 한국 청소년이 일본 문화를 적극적으로 선택하는가를 일본 청소년의 현상과 비교하면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즉, 일본 문화를 짊어질 사람과 일본 문화를 분리해서 거론하지 않으며, 한국 청소년의 사회적 형성

일본 문화를 어떻게 수용하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자리잡고 있는 한국 아이들이 요구하는 문화는 무엇인가, 혹은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한국 사회를 구성하는 새로운 문화의 재구축에의 과제는 무엇인가를 물어야만 한다

에 있어서 어떠한 문화가 적합한 것인가를, 그들이 현재 선택(소비)하는 세계를 내재적으로 고찰·평가하는 관점에서 논의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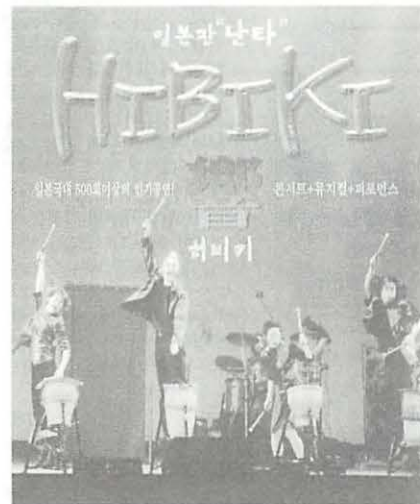
더욱이 문화의 재구축 문제와 관련하여 역시 앞서 소개했지만, 일본 만화나 일본제 게임의 유입이 약간 시간적으로 지연되면서, 한국 만화와 한국제 게임의 질적 향상과 생산량의 확대를 유도하고 있음을 지적해 둔다. 금후 일본 가요와 한국의 가요가 유사한 길을 걸을 것이라 예측된다. 즉, 일시적으로 일본 가요의 점유율이 높아지더라도, 반면 한국 가요의 질과 양, 양쪽 차원에서의 향상을 유인하여 결

과적으로는 한국 문화의 재구축에의 계기를 준비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물론 이러한 시점은 한국 문화와 일본 문화뿐만이 아닌, 세계의 다양한 문화 사이에서 생겨나는 일이고, 한국 청소년의 문제만이 아닌 한국 땅에서 생활하는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논해야만 하는 과제이기도 함을 확인해 둔다.

마지막으로 위의 관점은 어디까지나 동아시아 세계가 서구 사회에 기원을 두는 공업화의 물결을 뛰어넘은 뒤, 국제화된 정보화의 물결을 받아들임으로써 부득불 개편 당하고 있는 아이들, 특히 사춘기에 있는 인간의 사회적 형성 과제를, 한국과 일본의 현상 비교 분석을 바탕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필자 자신의 문제 의식에 근거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입장 자체의 문제나 다른 입장에서의 문제도 있음을 전제로 제시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문제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음에 마지막으로 양해를 구한다.

지난 3월 본 협회에서는 일본의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를 보다 가까워서 느낄 수 있는 두 공연을 준비하였다. 「보라쿠(文樂)」와 「히비키(響)」. 봄을 맞아 부산을 찾은 이 공연들은 평소 생생한 일본 문화를 접하기 힘들었던 관객들에게 신선한 감동을 선사하였다.



히비키(響)

- 일시 : 2001년 3월16일~17일 오후 7:30
- 장소 : 부산문화회관 중강당
- 제작 : 아키타(秋田)현 극단 와라비자
- 주최 : (사)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일본국제교류기금
- 후원 : 재부산일본국총영사관, 한국예총부산지회, 주한일본국대사관 공보문화원

「히비키」 부산공연은 일본과의 문화 교류적 차원에서, 50년 전통의 극단 와라비자의 최근 작품을 초청한 것이다. 나카무라 아키카즈(中村明一)씨의 음악에 일본에서 활동중인 재일한국인 정인신씨가 연출을 맡았으며, 극단 내에서 제3세대라 할 수 있는 여섯 명의 젊은 음악가들로 밴드가 구성되었다.

「히비키」는 단순히 듣고 즐기는 음악밴드가 아니라, 공트와 댄스가 포함된 퍼포먼스 밴드. 보여주는 밴드로서 일본 국내 공연을 통해 호평을 받아왔다. 특히, 현재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의 심성을 담은 음악들로 그들의 진정한 주장을 잘 표현하였다는 점이 높이 평가되어왔다.

색동어린이에솔단의 경쾌한 길놀이와 판굿으로 시작된 「히비키」 부산공연은 새로운 비트와 음색, 특유의 코믹함으로 공연 내내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특히 이번 부산공연은 지난 4년간 계속되어온 「히비키」의 마지막 공연으로, 공연에 참가한 뮤지션들에게도 오래도록 기억될 감동적인 시간이었다.

Asianfriend



社団法人 釜山韓日文化交流協会
Korea-Japan Cultural Exchange Association

601-837
釜山市 東區 草梁3洞 1157-2 碧岩B/D 5層
1157-2, 5th Floor, Byuk Am Bldg.
Choryang - 3dong, Dong ku, Pusan, Korea
Tel : (051) 464-3554 · 465-7323
Fax : (051) 464-3554
<http://www.kojac.or.kr>



社団法人 釜山韓日文化交流協会
Korea-Japan Cultural Exchange Association



2000년 제1호

순수 민간단체로 설립된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가 2000년 6월 10일 외교통상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인가를 받아 새로운 출발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에 1989년 창간 이후, 지난 11년간 협회 소식을 전해온 「Asian Friend」가 계간지로 모습을 바꾸어 보다 자주 여러분을 찾아뵙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한일 양국의 폭넓은 인적·문화적 교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협회의 모습을 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純粋民間団体として設立された釜山韓日文化交流協會が2000年6月10日、政府より社団法人としての設立認可を得て、新たに出発いたしました。それを契機として1989年の創刊以後、11年間にわたり、当協會の動向を伝えてきた「Asian Friend」が季刊紙として新たに形を変え、より皆様に近づけるようになりました。今後とも日韓兩國の幅広い人的・文化的交流に最善を尽くす当協會の姿を皆様に伝えることができるよう、努力いたしたいと思ひます。

계간/발행일 2000년11월17일
발행처 (사)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발행인 고 송 구
주 소 부산시 동구 초량3동 1157-2 벽암빌딩5F
Tel : (051)464-3554 · 465-7323
Fax : (051)464-3554
정기간행물 등록 (부산)아-1호
제 작 빛누리기획 Tel : (051)254-2177

2000년 제1호

祇園祭りの前夜祭・白川女の里の花売り・つくばいと散紅葉
기온축제의 전야제·시라카와의 꽃파는 소녀·낙엽 쌓인 일본정원

4 發刊辭
/ 理事長 高松久
/ 會長 孫海植

6 祝辭
/ 副會長 岸田定
/ 總領事 堀泰三

8 事業報告

12 交流所感文
- 가부키 그리고 와라비자 / 金侑美
- 소중한 추억의 섬 쓰시마 / 宋善美

16 特別寄稿
한국 청소년의 일본 대중문화
집착상황에서 보이는
수용 논의의 문제성과 과제
/ 馬居政幸

24 韓國語講座 座談會

31 第17回 日本語総合大會
가장 가까운 일본, 대마도
/ 金美秀

34 日本經濟環境 소식

35 釜山青年會 活動



高松久

(社)釜山韓日文化交流協會 理事長

사단법인으로 새출발

지난 1987년에 설립하여 그동안 민간차원에서 한·일양국간의 인적·문화적 교류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왔던 저희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가 2000년 6월 정부로부터 법인 설립을 허가 받아 사단법인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로 새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발간되어 오던 아시안프렌드도 법인 설립과 동시에 계간지 형식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사)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가 발전된 모습으로 다가설 수 있게 된 것은 관계기관의 협조와 회원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참여 덕분이라 사료되어 이 지면을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한일 양국간의 문화 교류의 형태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높은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부응해서 저희 (사)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도 민간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며 News Letter 형식의 아시안프렌드도 한일문화교류의 메신저로써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인 성원 부탁드립니다.

社団法人として新たな出発

1987年の設立以来、民間レベルでの日韓両国間の人的・文化的交流の主導的な役割を遂行して来た釜山韓日文化交流協會が、2000年6月、政府より法人設立の許可を得て、社団法人釜山韓日文化交流協會として新たに出発する運びとなりました。

それとともに、年間の形で発刊されてきた「Asian Friend」も法人設立を機会に季刊紙の形で発刊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

このように、当協會がより発展された姿で皆様に近づけることになったのは、一重に関係機関のご協力や会員の皆さまの弛まなご関心とご参与の賜物と存じ、この面を借りて深く感謝の意を表したいと思ひます。来る21世紀は日韓両国の文化交流も、今までとは違ふハイレベルの新たな姿に変わって来ると思われます。このような時代状況に合わせて、私ども(社)釜山韓日文化交流協會も民間レベルで最善を尽くしていく所存でございます。同時にニュースレター形式の「Asian Friend」も、日韓文化交流のメッセンジャーとしての役割を十分果たせるよう努力していこうと思ひます。

これからも、皆様の変わらぬご関心とご協力をお願い申し上げます。



孫海植

(社)釜山韓日文化交流協會 會長

「Asian Friend」계간지 형식으로 새롭게 발간

한일양국간의 문화교류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는 오늘날, 관계기관 및 회원 여러분들의 격려와 성원 속에 지금까지 저희 협회 기관지였던 「아시안 프렌드」가 새롭게 News Letter형식의 계간지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사)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에서는 1987년 창립된 이래 오늘날까지 양국간의 순수한 민간차원의 문화 교류를 통하여 상호이해와 우호증진을 도모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최근의 한일양국은 상호간에 대단히 우호적인 관계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 협회의 News Letter로 새롭게 출발하는 「아시안 프렌드」는 양국간 민간교류를 더욱 활발하게 만드는 촉매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1세기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해서 저희들은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며, 민간차원에서 한일교류의 중심에 저희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가 자리매김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ASIAN FRIEND」、 뉴스레터として新たに発刊され

日韓両国間の文化交流における新たな転換点を迎えている今日、関係機関並びに会員の皆様方の激励とご声援の中に今まで私どもの協會の機関紙であった「Asian Friend」が新たにニュースレター形式の季刊紙として発刊される運びとなりました。

この間、私ども(社)釜山韓日文化交流協會では創立以来、両国間の純粋な民間次元での草の根の交流を通じて相互理解と友好増進のために弛まぬ努力を重ねて参りました。近年、日韓両国は相互に多くの友好的な関係に発展してまいりました。このような時点において私どもの協會のニュースレターとして新たに出発する「Asian Friend」は両国間の民間交流をさらに活発にする触媒の役割ができることと信じて止みません。

21世紀の未来志向的な日韓関係のために、私どもは一層の努力を重ねることを約束し、民間次元での日韓交流の中心に、私ども韓日文化交流協會が位置付けられるまで最善を尽くす所存でございます。



岸田 定 키시다 사다무
社団法人釜山日文化交流協會 副會長

益々の文化交流に期待して

楽しみにしている「Asian Friend」。季刊誌として発刊されましたことをお祝い申し上げます。

高松久理事長始め関係の皆さんの長年に亘るご活躍で日韓の草ノ根文化交流が大きく稔り社団法人となり、今後益々交流事業が発展いたしますことと期待をいたします。

人とお酒は古ければ古い程、味が出ると韓国の方に伺ったことがあります、長年の交流で単に事業だけでなく、日本側会員の多くの方は、協会での出会いを大切に、友を得ることになり、お互い信じ合へる仲間の輪が広がって参りました。

近くても遠いの言葉を返上し、文化交流事業を通して真の隣国となることを祈念いたし、発刊のお祝いの言葉といたします。

더욱 활발한 문화 교류를 기대하며

기대되는 아시안프렌드, 계간지로서 발간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고송구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오랜 기간에 걸친 활약으로 한일간의 풀뿌리 교류가 크게 결실을 맺어 사단법인이 되었고, 앞으로 도 교류 사업이 더욱 발전하시길 기대하는 바입니다.

사람과 술은 목으면 목을수록 그 맛이 우러난다고 한국 분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오랜 기간의 교류로 단순한 사업에 그치지 않고, 일본측 회원의 많은 분들이 협회에서 만남을 소중하게 여겨 친구를 얻고 서로 믿는 동료로서의 친분의 폭을 넓혀 왔습니다.

가깝고도 멀다는 말은 반려하고 문화교류사업을 통해 진정한 이웃나라가 되길 기원하며 발간에 대한 축사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堀 泰三 호리 타이쥬
在釜山日本總領事館 總領事

21世紀に向け一層の活躍を

今般、当協会が、その創立以降これまで毎年発刊してきた「Asian Friend」を新たにニュース・レター形式として年3回発行されることになったことは、21世紀を迎えるに際し貴協会の新たな決意を表すようでもあり、その発刊を心からお祝い申し上げます。

2002年には釜山アジア大会が開催され、日韓共催のワールドカップ・サッカーも行われることになっており、これらを契機とし日韓両国間の多様且つ緊密な交流が展開されることになると思われます。その中で、日韓両国間の友好関係の推進に実績のある貴協会には一層大きな期待が寄せられることでしょう。21世紀において、貴協会が益々発展し、日韓両国間の相互理解と友好親善関係増進のため一層の御活躍をされますように強く期待しております。

21세기를 향해 힘찬 도약을

금번 귀협회가 창립 이후 지금까지 매년 발간해 온 「아시안 프렌드」를 새로이 News Letter 형식으로써 년 3회 발간하게 된 것은, 21세기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귀협회의 새로운 의지를 표방하는 것으로서, 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02년에는 부산에서 아시안게임 및 한일공동주최의 월드컵이 개최되며, 이를 계기로, 한일 양국간의 다양하고 긴밀한 교류가 전개되리라 사료됩니다. 그 중에서도, 한일 양국간의 우호관계 추진에 공헌이 되는 귀협회에 거는 기대는 더욱 더 배가 되겠지요.

21세기에는 귀협회가 더욱 발전하며, 한일 양국간의 상호이해와 우호친선관계 증진을 위해 가일층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1. 社團法人으로서 새출발



釜山韓日文化交流協會는 外交通商部로부터 社團法人으로서 認可를 받아, 앞으로의 보다 활발한 交流의 基盤을 構築하고 새로운 出發을 맞이하게 되었다.

◆ 社團法人 設立 經過

- 1997年 8月19日 第2回 運營委員會
 - 社團法人 設立 論議
- 1999年 7月21日 第2回 運營委員會
 - 社團法人 設立에 대한 計劃 報告
- 2000年 1月14日 第3回 運營委員會
 - 社團法人 設立 決議
- 2000年 3月31日 定期總會 및 社團法人 發起人會 開催
 - 社團法人 設立 發起人會 議決 社團法人 釜山韓日文化交流協會 定款 確定 및 理事 就任 承諾
- 2000年 6月10日 社團法人 設立 認可 取得(外交通商部)
- 2000年 6月30日 社團法人 設立 登記 完了

2. 韓國語講座 實施

- 對象: 釜山・慶南 在住의 日本人
- 場所: 本協會 講義室
- 時間: 每週 土曜日 14:00~16:00

◆ 第23期 韓國語講座

- 期間: 2000年 3月18日~7月29日
- 講師
 - 初級: 朴總德(東亞大 大學院 2年)
 - 中級: 田美京(釜慶大 大學院 1年)

◆ 第24期 韓國語講座



- 期間: 2000年 9月16日~2001年 1月20日
- 講師
 - 初級: 金美羅
 - 中級: 田美京

◆ 韓國 文化 體驗



- 9月23日 시골놀이 體驗
- 11月 4日 陶磁器 製作 過程 體驗
- 12月 2日 韓國 料理 講習
- 1月13日 韓國 傳統茶道 體驗

3. 訪日交流

(1) 關西文化 探訪

- ① 期間: 2000年 2月13日~22日
- ② 主催: (社)釜山韓日文化交流協會, 同志社大學 國際Center
- ③ 後援: (財)日韓文化交流基金
- ④ 內容: 大阪, 京都, 神戸 등 關西의 주요 지역 탐방 및 고대 아스카(飛鳥)문화 유적지 답사, 홈스테이 실시, 同志社대학에서의 한일청년포럼 개최 등
- ⑤ 參加者: 갈매기青年會 會員 18名



(2) (財)京都市國際交流協會 主催 大學生訪日研修 實施

- ① 期間: 2000年 7月21日~7月30日
- ② 內容: 京都地域 文化探訪 및 홈스테이, 韓日新世代포럼 開催 등
- ③ 對象: 大學生 12名

(3) 對馬 大學生 홈스테이 실시



- ① 期間: 2000年 7月24日~8月 4日
- ② 招請: 上對馬町, 上縣町
- ③ 對象: 갈매기青年會 會員 30名

(4) 「第15回 작은 地球計劃」 參加

- ① 期間: 2000年 7月29日~8月13日
- ② 主催: 地球市民의 會
- ③ 對象: 갈매기青年會 會員 6名

(5) 「第14回 若葉と交流」 參加

- ① 期間: 2000年 7月31日~8月11日
- ② 主催: 肥前町國際交流協會
- ③ 對象: 갈매기青年會 會員 12名

(6) 關西地域 홈스테이 實施

- ① 期間: 2000年 7月27日~8月 1日
- ② 招請: 히포레일리클럽 關西支部
- ③ 對象: 協會 一般會員 22家族 31名

(7) 九州地域 홈스테이 實施

- ① 期間: 2000年 8月 1日~8月 7日
- ② 招請: 히포레일리클럽 九州支部
- ③ 對象: 釜山 市内 大學生 46名

(8) 「慶南青年College2000」 參加

- ① 期間: 2000年 8月23日~9月 2日

② 主催: 山口縣青年國際交流機構

- ③ 對象: 慶南地域 5個大學(慶南大, 慶尚大, 蔚山大, 仁濟大, 昌原大) 大學生 25名

(9) 釜山文化人訪日研修團 派遣

- ① 期間: 2000年10月10日~10月17日
- ② 招請: (財)日韓文化交流基金
- ③ 對象: 釜山 文化界의 각分野에서 選任된 文化人 15名

4. 訪韓交流

(1) 京都青少年訪韓團 홈스테이 實施

- ① 期間: 2000年 8月 8日~8月11日
- ② 對象: (財)京都市國際交流協會 派遣 青少年訪韓研修團 21名

(2) 히포레일리클럽 訪韓團 홈스테이 實施

- ① 期間: 2000年 8月19日~8月23日
- ② 對象: 히포레일리클럽 會員 29家族 32名



(3) 山口縣 大學生研修團 訪韓

- ① 期間: 2000年11月 1日~11月 6日
- ② 對象: 山口地域 大學生 15名
- ③ 內容: 홈스테이 및 獨立記念館 見學, 大學生討論會 등 을 통한 交流

HIBIKI



「이비키」공연팀의 부산 도착



「히비키」브사공여단 화염의 개척



외근기자예술촌 문화재단 부산 방문



앵콜공연시 무대 앞에서 환호하는 관객들

「히비키」의 무대는 전통을 바탕으로 젊은 감성을 전제적으로 살렸으며, 음악 역시 일본 전통에 능숙한 축제의 리듬에 바탕을 두면서 레게와 랩도 도입시켜 재창한 현대의 축제 음악이다. '세상은 소리로 가득 찼고, 우리는 그것을 표현한다'는 컨셉 아래 사계절을 테마로 하여 다양한 악기로 일상의 소리들을 색다르게 표현한다. 밴드에서 사용하는 악기 역시 이 팀이 가진 하나의 특징으로 흙으로 만든 토기북, 일본 북, 츠구루 사미센, 퉁소, 횃쇠, 차파라고 하는 팽과리, 방울 등 일본 전통 악기와 드럼, 신시사이저와 같은 서양 악기를 기교 있게 혼성시켜 새로운 조화를 만들어 낸다.

음악적인 면에서 「허비키」는 통소와 횡청 등 멜로디를 구사하는 관악기로 인간 내면의 감성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한편, 힘찬 타악기의 격렬한 리듬으로 선율을 받쳐주는, 관악과 타악의 이중 악기 편성으로 흥미로움을 넘어서 새로운 타악 공연의 시대를 예고한다.

또한 '이야기가 있는 콘서트'라는 주제로 연극, 무용, 음악 등 공연무대예술의 다양한 장르가 만나 새로운 형태의 무대예술을 창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독특한 형식을 띠고 있다. 그러한 장르적 조화가 계시하는 예술적, 실험적 가치는 대중들에게 쉽게 수용되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공연 내내 무대를 활보하며 현대를 살고 있는 젊은 세대의 감성을 거리낌없는 자유로움으로 말하고 몸으로 표현하며 관객과 호흡하는 집에서는 연극적인 요소가 강하게 돋보인다. 일본 전통 춤과 악기를 바탕으로 하여, 현대적인 감각과 악기 및 레게와 랩 등과 같은 음악 형태가 잘 어우러져, 관객은 다양한 악기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연주자들의 뛰어난 연주 실력과 몸사를 탄진한 연기와 춤, 노래 등을 통해 한 편의 아름다운 드라마를 감상하게 된다.

이 공연은 사계절에 맞는 소리를 찾는 소년과 가게 점원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리를 파는 가게'라는 설정이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소리를 파는 가게’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소리를 통한 인간의 감정과 주변 세계에 대한 시각적 표현, 그러한 뛰어난 상상력에 바탕을 둔 다양한 색깔과 리듬의 음악들로 음악 퍼포먼스 밴드 ‘허비키’는 빛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새로운 시도와 모험은 계속되어질 것이다.



「히비키」 부산공연을 관람한 네티즌들의 공연감상입니다.
아트웹진 '야야' 에서 발췌했습니다. / www.yaya.co.kr



두강으로 돌물이 무겁고 쓰시며 두식하리니 겹돈 송소리며 히비히루 보고 같다.
악연하세기 이슬로 지날 노르하니 들한 백여마리의 황우가, 그들의 뿔 돌작고
전방작을 맡들 가뽏고 또 다른 말을 씌었다.
악한은 전사가 다른 강이 어진 해지나,
그 이슬같이 여제에 퍼드 정하지 못하야다 준 예들의 경장이 아녀어라 신타,
난타하고 그래서 끝까지 치고 푸드러져 끝나온 미신타나... 부대미,
끝지어나 하기에 소로마 부속하고 난타하 하기에 복합된 경장이 있었다.
악론 때는 경장은 주책처럼 못하야다 나사는 나사한 수완의 경장이 있었다.
악론 후에 악연하 세이신고 유래한 사냥이 야신타다
음... 너목 많은 거대모다는 그냥 다 나후 중양의 리를들 줄리고 악론자
느끼고 풍다는 생김만 거대모데를 생과준 열을 곧 같이 도치 앞둔다 신타,
거늘... 난 후도 소로마의 리스키게 양포되었다 / 김민하

[illegible]

피로연과 테니스 등 주말엔 나들이를 즐기기도 한다. 특히 주말엔 집에서 쉬는 것보다 야외에서 활동하는 것을 좋아한다. 주말엔 친구들과 함께 캠핑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낚시를 하기도 한다. 주말엔 집에서 쉬는 것보다 야외에서 활동하는 것을 좋아한다. 주말엔 친구들과 함께 캠핑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낚시를 하기도 한다.

[illegible]

다) 즉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 같은 참외와 오이를
아기인 자미생과 우리 아기 오이로 같은 참외와 오이를
표현하기가 적합한 신시시어인 등이 어울려 보하고도 신시시어
표현하기가 어울려진 신시시어 표현들을 영주해 본다.

1.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의 한국 사회는
 2.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의 한국 사회는
 3.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의 한국 사회는

이 물 배려와, 어루하기 하나 우리 할 조
 이 물 배려와, 어루하기 하나 우리 할 조
 이 물 배려와, 어루하기 하나 우리 할 조

토미복을 짓는 일이 이렇게 나하라고 한 건 나의 어깨와 마음을 도우려는
 것 아닐까? 장한이 마음까지 나의 어깨와 마음을 도우려는 것 아닐까? 나의 어깨와 마음을 도우려는 것 아닐까?

이 공감각은 문과 수학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예컨대 이고 노력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두 번이나 요청하고, 그
수 있는 것만 재미있고, 예컨대 이고 노력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두 번이나 요청하고, 그

관객 모두가 그 속에 들어와서 함께 울고 웃고
계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작품을 보았을 때
관객 모두가 그 속에 들어와서 함께 울고 웃고
계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작품을 보았을 때

고 나오면서 이바하를 받대요. 이바하를 받들
 고 나오면서 이바하를 받대요. 이바하를 받들

정원우



분라쿠(文樂)

- 일시 : 2001년 3월 9일 오후 6:00
- 장소 : 부산문화회관 중강당
- 주최 : 재부산일본국총영사관, (사)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일본국제교류기금, (사)부산연극협회
- 협력 : 한국예술종합학교

· 프로그램

소네자카신주 · 텐진노모리의 막(曾根崎心中 · 天神森の段) / 20분
 다유(太夫), 사미센(三味線), 인형(人形)에 관한 해설 / 50분
 쓰보사카칸논레이겐키 · 사와이치우치 중 산의 막
 (壺坂観音霊驗記 · 澤市内より山の段) / 50분



분라쿠에는 6가지 큰 특징이 있다.

하나, 300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둘, 다유(太夫), 사미센(三味線), 인형(人形)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셋, 인형은 세 명이 조종한다.
 넷, 극단원은 전원 남성이다.
 다섯, 인형극이지만, 대상은 성인이다.
 여섯, 기다유부시(義大夫節)에 의해 드라마가 전개된다.

이 가운데 특히 다유와 사미센 연주에 의한 「기다유부시(義大夫節)」가 핵심이 되고 인형과 연대하여 드라마를 만들어 나가는 점은 다른 고전 예능에서는 볼 수 없는 큰 특색이다. 기다유부시의 대부분은 情을 다룬 이야기이다. 마음의 葛藤, 愛情, 恩情, 厚情, 眞情, 同情, 薄情 등의 「情의 세계」를 그리는 드라마인 것이다.

분라쿠는 오페라에 비유되기도 한다. 즉, 음악극이다. 한 사람의 다유가 사미센과 공동 작업으로 사랑에 빠진 젊은이와 무사, 아이와 노인, 딸과 어머니, 유녀에 이르기까지 모든 등장인물들의 심적 움직임을 실제의 해당 인물처럼 보이도록 분별하여 읊는다. 이와 함께 드라마와 정경묘사까지도 한 사람의

다유가 표현해 내는 것이다. 그리고 언어는 옛 오사카(大阪)의 독특한 말투를 사용한다. 한국의 전라도 지방에서 탄생한 판소리와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기다유의 사미센은 반주 악기라고 볼 수 없으며, 여운 있는 음색으로 호쾌하게 때로는 섬세하게 미묘한 변화무쌍함으로 관객을 드라마 속으로 이끌어 간다.

분라쿠에서는 하나의 인형을 세 명이 조종한다. 주조종자(오모쓰카이-主遣い)는 왼손으로 얼굴 부분을 움직이고, 오른손으로 인형의 오른팔을 움직인다. 그리고 좌측조종자(히다리쓰카이-左遣い)는 오른손으로 인형의 왼팔을 움직인다. 또한 측부조종자(아시쓰카이-足遣い)는 양손으로 인형의 다리를 움직인다. 이렇게

세 사람이 호흡을 맞춰 하나의 인형을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기다유부시가 읊는 회노에라의 감정은 인형 조종자(닌교쓰카이-人形遣い)를 통해 인형이 표현한다. 인형 조종자는 다유, 사미센과 함께 드라마 속의 인물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세 사람의 인형 조종자의 호흡이 정확하게 일치했을 때 무대에서 인형 조종자의 존재가 사라지고 인형의 모습만이 부상한



다고 한다.

분라쿠는 고전 예능이지만, 시대와 함께 걸어온 예능이기도 한다. 현재는 오사카를 거점으로 90명이 넘는 단원이 공연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국어강좌 좌담회

■ 日 時 : 2000年 11月 2日(火) 19:00~
 ■ 参加者 : 伊藤 浩美(오호미) 釜山外國語大學 專任講師
 ・大畑 龍次(오우지) 釜山國際大學 專任講師 ・長谷川 和正(おさむ) 釜山國際大學 交換學生
 ■ 司 會 : 河淑賢 (하수현) 釜山日文化交流協會 事務局長

河 한국어강좌에 대해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만, 大畑 선생님, 우리 협회의 한국어강좌는 몇 년전부터 참가하셨습니다?

伊藤 公부를 시작한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은 제에게

는 한국어 발음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갑자기 이곳, 한국 문화권에서 생활하게 되어 한동안은 어찌해야 할지 몰라 무척 당황스러웠어요. 처음엔 남편이나 안 내문도 읽지 못하고, 물론 말도 할 줄 몰랐습니다. 협회에서 공부를 시작했고, 한글에도 조금씩 익숙해져 지금은 대충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읽을 수 있게 되었다고는 해도 아직 그 못까지 이해하지 못하는 게 대부분이지 않요.(웃음) 선생님께서는 문법사항 등

은 일본어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에, 익숙하지 않은 제에게는 고맙게 느껴지죠. 주 1회이기는 하지만, 협회의 한국어강좌에 참가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河 그렇습니까. 長谷川씨 는?

長谷川 저는 남편 하세이로 성질하게 수업에 나오지 않았습다. 하지만 좀씩 읽을 때는 그만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뒤늦게야 한 경

도는 아니니까요.(웃음) 읽은 게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거의 한국어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기관

大畑 龍次요. 배려량 선생님도 제 시고, 한국어를 외국인에게 가르치는 일종의 교수법이 이 강좌와 더불어 축적되어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한국어와 일본어, 어떻게 다른지를 검토해서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교수법의 축적이랄까, 그런 것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지 않을까요? 단지 고급만이 잘게 썰리지 않아서 아쉽습니다.

河 그렇군요, 상급레벨에 이르기가까지는 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습니



를 찾았습니다만, 부산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고, 있더라도 굉장히 비싸서 이젠 나 혼자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어하는 동포가 있고, 동료가 있으면 서로 자극을 받으며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큰 즐거움이 일론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대화생을 모인(강매기회)의 회원들과 갖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한국과 일본에 대해 여러 가지 발견할 수 있어서 매주 정말로 즐거웠습니다. 또 해외에서의 생활로 인해 평소 만나는 일이 드문 일본문들을 만나 일본어를 쓸 수 있었던 것도 즐거웠습니다.

河 현재 제하중인 부산교육대학교에는 다른 일본인이 계십니까?

長谷川 저는 첫 외국인 유학생으로 교육대학교에 들

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입니다. 제 동생을 세워주길 바랄 정도입니다(웃음) 하하하. 응답합니다(웃음) 그래서 이 시간은 주로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어서 왔으니

까, 특별한 활동은 가끔씩 다른 날에 했으면 합니다. 역시 일주일에 한번 밖에 한 주 빠지면 다음 수

업까지 꽤 긴 시간이 있으니까, 앞에 배운 것도 잊어 버리고 수업을 듣는 입장으로서서는 힘이 듭니다. 물론

활동을 통해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일요일이라는지 모두의 사정에 맞추어 토요일 이외의

날에 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河 지금까지의 강좌는 한국어, 아화 중심으로, 한

국 문화 등에 대한 접촉은 그다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 체험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문화 체험은, 9월에는 사람들이, 10월에는 도자기 굽기, 이후에는 한

伊藤 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두들겨 보았습니다만, 움직임을 잡지 않더군요. 좌우를 다른 동작으로 치야 했기 때문에 어려웠어요. 초등학교생들이 연주를 들려 주었는데, 모두 어찌나 잘 하던지... 너무나도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 듯해서 감동 받았습다.

河 長谷川씨, 한국어강좌를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나 희망사항이 있다면,

長谷川 앞에서 말씀하신 사람들이라는지 수업 이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저로서

는 이 시간은 주로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어서 왔으니

까, 특별한 활동은 가끔씩 다른 날에 했으면 합니다.

역시 일주일에 한번 밖에 한 주 빠지면 다음 수

업까지 꽤 긴 시간이 있으니까, 앞에 배운 것도 잊어 버리고 수업을 듣는 입장으로서서는 힘이 듭니다. 물론

활동을 통해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일요일이라는지 모두의 사정에 맞추어 토요일 이외의

날에 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河 지금까지의 강좌는 한국어, 아화 중심으로, 한

우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함을 가지고 갈 때라든지, 그런 일은 한국인과 만나지 않으면 참가할 수 없겠지요. 저는 결혼식에는 몇 번인가 참가한 적 있지만, 장례식에는 아직 한번도 참가한 적 없습니다. 생활 레벨의, 생활 속에서의 그런 일이 재미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 날은 어떤 음식을 먹는 날이라든지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제사 같은 것은 일본인이 모릅니다. 때문에 그런 것도 어딘가에서 견학하고 싶습니다. 1년이나 2년 정도로 일본에 돌아가 버리는 사람은 그러한 기회가 없기 때문에 무리를 하더라도 경험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河 다음 질문으로 들어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한국에서 금지되어있던 일본 대중 문화의 개방이 1998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만, 99년 제2차 문화 개방, 급진 세 번째 문화 개방 선언이 있었습니다. 98년 일본 대중 문화 개방 이후부터 한국과 일본은 대단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만, 大畑씨, 10년 전의 한일관계와 현재의 한일관계는 어떻습니까?

大畑 어쨌든 시민레벨이라든지 여러 차원에서 대단히 많은 교류를 하고 있으니까, 국가적 차원에서는 물론 시민레벨에서 비약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한국 김치며 한국 영화들이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죠. 대단히 급격하게 가까워졌습니다. 따라서 2002년 월드컵이 열릴 즈음에는 비약적으로 접근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다지 문제라고 할 것은 없겠지요.

河 伊藤선생님, 오시기 전에 두 번정도 한국에 오셨던 경험이 있다고 하셨는데.

伊藤 이곳 대학교에서 가르치게 되면서 여러 형태로 학생들과 접하게 되었는데, 노래, 영화, 만화 등 서브컬처(subculture) 부분에서 일본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일본어 공

부를 하게 된 동기가, 예를 들면 "일본어로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고 싶어요", "일본 노래가 좋아요!" 하는 식이었어요. '키티나', '피카츄', '짱구는 못 말려' 등 캐릭터 상품도 시장에 넘치고 있더라고요. 지금까지도 언더그라운드에서는 일본 음악이나 영화도 들어와 있는 것 같고, 그러한 상품과 정보 등을 젊은 사람들이 재빨리 받아들여, 자신이 좋아하는 세계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전에 두 번, 한국에 왔을 때도 '대단한 열기구냐!' 하고 생각했습니다만, 실제로 여기에 와서 생활하게 되면서, 일본 제품과 일본에서 들어오는 정보의 강한 영향력에 놀랐습니다. 반대로, 일본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그 만큼의 높은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하긴 최근 들어 변해가고는 있지만요. 여하튼, 이런 저런 계기로 관심을 갖게 되어도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만... 오히려 대국적 시야에서 한일관계를 바라보는 것보다 가까운 주변에 흥미를 가짐으로써 서로의 관계가 넓어져 가는 것도 있으니까요.

長谷川 일본에 있을 때 한국이라고 하면, 불고기, 김치(매운 음식), 매밀이, 싸고 즐거운 쇼핑...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떠올릴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반일 감정이 뿌리깊은 나라...일본에서 소개되고 있는 한국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살면서 7개월간 제 나름으로 한국이 보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많은 분들과의 만남, 대화, 술자리(웃음) 한국인 사회에 녹아 들어가는 가운데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일본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아서 모임에서도 일본의 모든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대답하는데 고생하지만, 자신도 일본에 대해 여러 가지 되돌아볼 수 있어서 즐겁습니다. 일본에서도 한국은 정말로 가까운 이웃나라이고, 더 더욱 여러 가지 일에 눈을 돌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역시 인적 교류가 우선되어야겠지요.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살아있는 교류, 여러 가지 형태로 더욱 넓혀갈 수 있으면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한일 관계도 좋은 방향으로

로 진전되어 가겠지요.

河 역시 한일관계는 최근 우호적인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반면 반일감정, 일본에서의 혐한(嫌韓) 감정이라 할까요,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제부터 21세기를 향한 한일관계를 위해 개선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大畑 지금까지 일본 매스컴의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정치라든지 남북통일 문제 등 정치적 성향의 정보가 많이 흘러나왔습니다. 생활 차원의 정보는 극히 드물었죠. 한국 신문기사도 쓰지만 하면 거의 기사화될 정도로, 다른 나라에 비해 지극히 정치라든지 남북관계 정보에 편중되어 생활 차원의 정보가 적습니다. 수저로 식사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기본적인 사실, 생활 스타일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河 그렇지요. 한일 양국 국민간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그것을 부추기고 있는 것도 매스컴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일본 비슷하군요. 伊藤선생님, 어떻습니까?

伊藤 분명 매스컴의 영향력은 크다고 봅니다. 하지만, 미디어에서 전하는 것은 대개가 정치성을 띠는 것을 확실히 인식해 두지 않으면 안됩니다. 오히려 이제까지 미디어에서 전하는 국가와 국가와의 관계라는 시점에 서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주변에서 보다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학생 몇 명이 작년 여름, 대마도에서 홈스테이를 했었는데, 그 호스트 패밀리와 지금도 연락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저도 기뻐했습니다. 그런 개인과 개인의 연결 속에서 주위를 움직이는 힘으로 발전해 갈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河 長谷川씨, 어떻습니까?

長谷川 일본과 한국,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우리들 세대는 그레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도 일본도 변하지 않으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급세 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伊藤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먼저 개인 차원에서의 유대관계에서 시작하여 그것이 최종적으로 국가 차원까지 나아간다면 좋겠습니다만... 역시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단지 미래를 주시해 나가는 것도 물론 좋지만, 과거를 모르는 채 미래를 주시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하기에, 과거의 사실(이제까지의 한일관계 등)을 잘 배워 알게된 다음에, 미래에 대해 생각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大畑 일본인과 한국인이라는 식으로 항상 생각해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본인은 어떻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아도, 저는 수상도 아니고 국가를 대표하지도 않지만, 어쨌든 개인과 개인의 관계인데도 국가 대 국가와의 관계처럼 언제나 이야기 나누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일본인이더라도, 좋아하는 일본인도 있고, 싫어하는 일본인도 있고, 한국인 가운데도 좋아하는 한국인도 있고, 싫어하는 한국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인이라든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초월해서 좋은 친구는 있습니다. 일본인이든 한국인이든

라는 것과는 별개로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河 그런 접근방법이 좋겠군요.

大畑 그러한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상당히 상호이해가 깊어지지 않을까요?

河 伊藤선생님은 한국에서 생활하시면서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伊藤 제가 한국에서 생활한지 두 달 남짓 되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아직 일본을 많이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나 일본과 비교하게 되네요. 말하자면, 일본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한국에서는 왜 이럴 때 이렇게 되어 버리는지 하는 식으로 말이죠. 외국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자신이 당연히 여겨 왔던 상식을 일단 없애지 않으면 살기 힘들어지는 면이 있더라고요. 입으로는 말하긴 쉬워도, 실제로 생활해 보면 그렇게 간단히 타협해서 맞춰 가기가 쉽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일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와 같은 시기에 대학교에 부임한 선생님 댁이었는데, 온돌 파이프의 파열로 침수가 되어 버렸어요. 그 분이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는 5센티미터 정도의 침수 상태여서 놀랐나봐요. 바닥에 중요한 것을 두지 않아 다행이었지만요. 하지만, 만일 중요한 것, 고가의 물품이 못 쓰게 되었다면 대체 누구에게 보상 받아야 하는 건지... 이런 경우, 집주인도, 아파트 관리 용역업체도 책임을 지지 않는 모양이라 납득이 가지 않았습시다.

大畑 사회의 경제력이랄까 발전 정도가 다르겠지요. 그래서 한국의 시스템 등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문제와 문화적인 문제는 다른 것입니다. 사회 시스템은 점점 좋아지면 해결되는 것으로 그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다. 하지만 문화적인 문제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런 나라다, 그런 문화다 라고, 그 차이는 역시 차이로서 확인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시스템이 늦어진다고나 일본 쪽이 앞서 있는 것은, 일본 시스템을 보고 한국인도 역시 좋구나하고 생각하면 바로 잡혀질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적 문제는 어렵습니다. 저도 10년 있지만, 문화적인 차이는 초월할 수 없어요. 역시 일본인이구나 하고 재확인했습니다. 일본인이구나 하는 재확인 10년이었습니다.

伊藤 처음에는 아무래도 쉽게 눈에 띄는 부분이나 알아채기 쉬운 부분을 비교하고 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당연시 여겨온 무언가와 다르다고, 하지만, '다르다, 다르다' 해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 사회가 각각 안고 있는 해결 방법에 맞추어 가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그 사회의 양식을 받아들여 익숙해지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좋은 점도 보이게 되지 않을까요?

大畑 그런 식으로 봐나가면 한국 쪽이 좋은 점도 있어요. '괜찮아요'라는 것은 일본에는 이미 없으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한국인의 여유로움은 중요합니다. 일본인은 조금해하지 말고 한국인에게 배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한국인은 자기 주장이 강하다고 하지만, 반대로 일본인은 늘 마음에 담아두고 지내 자살하는 사람이 3만명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어느 쪽이 좋은지 말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요.

伊藤 그래요. 한국인의 세세한 것에 구애받지 않는 성격에는 부러움도 느껴요. 어느 나라가 좋고 나쁜가가 아니라, 결국 거기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하는 점 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이미 언어를 초월한 거니까요.

河 상대국의 정체성을 극복하는 것은 꽤 어려운 일이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자주 이야기합니다만, 실은 양국은 가깝고도 다른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다르다는 의미는 똑같지 않다는 의미겠지요. 다르니까 한일 양국에게 서로 이해하려고 하는 협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협력을 그다지 하지 않고 있지요. 한국과 일본은 같은 유교 및 한자 문화권이므로 동일한 점이 많을거라 생각되지만, 예상외로 적습니다. 동일하다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사고이지요, 서로 자기중심적이면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 한국과 일본이 다르다는 사실을 서로 깊이 인식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大畑 가끔 같은 문화권 이니까, 아시아인이니까 공통점이 있다고 믿어버리는 경우도 있지요. 믿고 있는 것만으로도 역시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인과 일본인이란 면 처음부터 다르다는 것을 알겠지만... 한자도 사용하고 유교문화니까 공통점도 많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꽤 있습니다. 미국인이란 처음부터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괜찮지만, 한국인과 일본인은 공통점이 많을거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차이점에

놀라고 말지요.

河 長谷川씨,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長谷川 저도 제멋대로 속으로 한국은 이렇다라는 식으로 이미지를 가지고, 그 안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달라 생기는 부조화로 꽤 괴로운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와 함께 한국 사회에 푹 빠져 지낸다면 잘 이해할 수 있고, 새로운 시야를 가질 수 있어서 역시 자연스러운 것이 최고입니다! 지금부터도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에 신세를 지면서-또 언젠가는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웃음)-남은 한국에서의 시간도 의미있게 지내고 싶습니다.

河 긴 시간 협력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한국어강좌 좌담회를 마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이제부터 한국 어강좌에 반드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大畑선생님과 長谷川씨는 일본으로 돌아가시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을 활용해서 한일 양국간의 교류에도 협력할 수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前号の続きです。

河 韓国語の講座についてちょっとお話ししたいと思います。大畑先生、当協会の韓国語講座は何年前から参加されましたか。

大畑 韓国に来てからずっといる間は勉強しているんですけど、本講座では94年から始めて7年ぐらいですかね。

河 韓国語講座の歴史といっしょだったと思いますが、94年度の韓国語講座と現在の韓国語講座、特に変わったところがあれば、ご紹介ください。

大畑 そうですね。ベテランの先生もいるし、韓国語を外国人に教える一つの教育法の蓄積もこの講座と一緒にできてきたんじゃないかと思えますね。韓国語と日本語、どう違うかを検討して、どうやったらうまく教えられるかという教授法の蓄積ですか、それは受け継がれているんじゃないですか。ただ、高級班がなかなかできないので、それが残念です。

河 そうですね、上級レベルに至るまで結構時間が掛かりますので…。どうですか。伊藤先生、韓国語講座の授業はいかがですか。

伊藤 勉強しはじめたばかりの私にとっては、韓国語の発音が難しと感じています。こちらへ来て、いきなり何もかもがハングルの世界になってしまったので、最初はとても戸惑いました。看板や案内も読めないし、もちろん、どう話していいかわからないですし…。協会で勉強するようになって、ハングルにも少しずつ慣れてきて、今はだいたい読めるようになりました。読めるようになって、まだ意味がわからないことだらけですけど(笑)。先生は文法事項などは日本語で説く説明して下さるので、慣れていない私にはありがたい

ですね。週一回とはいえ、協会の韓国語講座に参加できてよかったと思っています。

河 そうですか。長谷川さんは？

長谷川 僕はですね、悪い学生でまともに授業に出てないんです。けど、出席したときにはその分がらばってます。フォローになってませんからねえ…。(笑) 実は僕は韓国に来た当初、ほとんど韓国語を使うことができませんでした。そこで、必死になって、韓国語を教えてくれる機関を探したのですが、釜山にそんなにたくさんないし、あったとしても、ものすごく高い料金なので、もう自分でやるしかない！と思っていた矢先、友達で紹介でこの講座を見つけました。ここに来れば、韓国語を勉強したい！という仲間がいるし、仲間がいれば、お互い刺激しあっていい効果がえられるし、もうひとつ大きな楽しみが日本に興味を持つ大学生の会(カルメギ会)のみなさんといろいろお話ができ、韓国・日本いろいろな発見ができるので毎週本当に楽しみです。また、海外生活のため日頃会うことの少ない日本人の方に会い、日本語を使えるのも楽しみでした。

河 今、在学している釜山教育大学にほかの日本の方はいらっしゃるんですか。

長谷川 僕は外国人留学生としては始めて教育大学に入りました。歴史上初めてですよ！僕の銅像を建てて欲しいくらいです！！ははは、冗談です。(笑) だから、僕の大学には日本人はもちろん、僕以外外国人の生徒はいません。それが、いいことであり、悪いことであります…。今は授業も韓国人の学生と全く同じものに出ています。もう少し、外国人留学生に対するサービス(生活の面とか)欲しいですが、まあ僕が初めてですからそのへんはしよ

うがないとわりきっています。けど、いいところもあって、この間なんか3年の学生達と一緒に大学附属の小学校の教育実習に参加することが出来ました。これは日本では考えられないことではないでしょうか。

河 やっぱ教育大学という所は、未来の先生を養成するところですので、外国人を受け入れることは珍しいことじゃないでしょうかね。

長谷川 そうですね。けど、これからの教育では国際性も重要になってくるので、これから先もっと増えてくると思います。実際11月から中国から2人の留学生が来ることになっています。

伊藤 韓国語だけでなく、文化体験講座も楽しみにしています。いろいろな角度から、韓国の文化にふれるいい機会ですね。

河 サムルノリは行かれましたか。

伊藤 はい、行きました。実際にたいてみたのですが、なかなかうまくできないものですね。左右、別々の動きをするのが難しかったです。子供達の演奏を聞かせてもらったのですが、みんな上手ですね。とても熱心に練習しているようで、感心しました。

河 長谷川さん、韓国語の講座でこれからこういうふうに行けばという願いか希望があれば。

長谷川 先、サムルノリとか授業以外に色々な催しものがあるというふうに言われたんですけど、僕としてはですね、この時間は主に韓国語を勉強したくて来ているわけですから、特別な活動というのは、出来るだけ別の日にするのが、うれしいですね。やっぱり一週間に一回しかない

ですから、一週抜けちゃうと次の授業までかなりの時間がありますので前のことも忘れちゃうし、授業を受ける側としては大変です。もちろん、活動から学ぶことも大切なことだと思っていますが、日曜日とかみんなの都合を合わせて土曜日以外の日にやるのが好ましいと思います。

河 今までの講座はハングルの語学中心であつたので、韓国の文化とか接触はあまりなかったんです。それに韓国の文化体験を始めました。韓国文化の体験がですね。9月にはサムルノリ、10月は焼き物、後は韓国の料理、キムチの作り方、茶道、そういうことを考えているんですけど、特に自分が関心のある部分があれば、これは必ず体験してみたいということがあれば、おっしゃってください。

大畑 私はね、ドルチャンチとか引越しとか、そういうものは日本人だけと付き合う人は分からないわけですね。そういうのも教えてもらいたいです。例えば、結納を持ってくる時とか、そういうのは韓国人に接しないと、そこに参加出来ないですね。私は結婚式には何回か参加したけど、葬式にはまだ一回も参加してませんけど。そういう生活レベルの、生活の中でのそんなことが面白い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けど。例えば、この日は何を食べる日とかあるじゃないですか。ジェサとか日本人は分からないですね。だからそういうのもどこかで見学してみたいです。1年とか2年とかで日本に帰ってしまう人はそういう機会がないので、無理に作ってでも体験できたらと思います。

河 次の質問に入ります。ご存知だと思いますが、今まで韓国の中で禁じられている日本大衆文化の開放が1998年から始まったんですけど、

99年の第2次の文化開放、今年の3回目の文化開放を宣言が行いました。1998年、日本の大衆文化の開放の以後から、韓国と日本は非常に良い友好的な関係を保っていると思いますけど、大畑さん、10年前の日韓関係と現在の日韓関係はどうですか。

大畑 とにかく、市民レベルとか色んなレベルでものごく交流していますから、国のレベルはもちろんのこと、市民レベルを付き合いがといいますか、行ったり来たりしているしね、飛躍的にのびちゃったので、日本でも韓国のキムチが人気あるし、韓国の映画とかも非常に人気があるしね、ものすごく急激に近くなった、だから2002年のワールドカップになったら、本当にもう飛躍的に接近す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ね。あまり問題というのはないですよ。

河 伊藤先生、いらっしゃる前に2回ぐらい韓国にやってきた経験があったそうですが。

伊藤 こちらの大学で教えるようになって、いろいろな形で学生と接点を持つようになりましたが、彼らを見ると、歌、映画、アニメなど、サブカルチャーの部分で日本への関心がとても高いということがわかりました。学生の多くは、日本語を勉強しようと思った動機が、たとえば、「日本語で日本のアニメを見たい!」とか、「日本の歌が大好き!」とかのようですし…。キティちゃんやピカチュウ、クレヨンしんちゃんなど、日本のキャラクターグッズは市場にあふれています。これまでもアンダーグラウンドでは、日本の音楽も映画も入ってきていたようだし、そうしたモノや情報を若い人たちはいち早くキャッチして、自分の好きな世界を作っているように見えます。以前に2度、韓国へ来たときもすごいなと感じましたが、実際、こちらで暮らすようになって

て、日本製品や日本からの情報の影響力の強さに驚きましたね。逆に、日本では韓国について、それほど強い関心を抱いていないような気がします。もっとも、最近は変わりつつありますが…。いずれにせよ、関心を持つきっかけはいろいろあってもいいんじゃないかと。むしろ、大所高所から日韓関係を見つめるより、身近なところから興味を持つことで広がっていく関係もあると思います。

長谷川 日本にいたとき韓国といえば焼肉、キムチ(辛いもの)、あかすり、安くて楽しいショッピング…。多くの人がそうあげると思います。また、反日が根強い国…。日本で紹介されている韓国をそのままのみにしていました。けど、ここに暮らして7ヶ月、自分なりの韓国が見えてきはじめました。それは、いろいろな方に出会い、話し、飲み(笑)韓国人社会にとけ込む中で感じるものでした。韓国では日本に対する関心はとても大きく飲み会の時にも日本に関してあらゆる分野のことを聞いてきます。答えるのに苦労するのですが自分も日本のことをいろいろ振りかえることができて楽しいです。日本でも韓国はほんとうに近いお隣の国ですし、もっともっといろんな事に目を向けられないかなと思います。そのためにはやっぱりまず、人的な交流ですかねえ…。ぼくはこれが一番と思います。人と人の生きた交流、いろんな形でもっと広がればいいなあとと思います。そういうところから日韓の関係もいい方向に進んでいくのでしょうか。

河 やっぱり日韓関係は最近友好的な雰囲気盛りがりつつあると思います。その反面には未だに反日感情、日本の中には嫌韓感情と言いますか、残されていると思いますが…。これから21世紀に向けての日韓関係のため、改善しなければいけないことがありましたら、ご紹介ください。

大畑 今までの日本のマスコミのせいだと思いますけど、政治とか南北統一の問題とか政治向きの情報がたくさん流れてきました。生活レベルの情報が極めて少ないですね。韓国の新聞記事なんかでも書くところほとんど記事になるぐらい、ほかの国に比べて、ものすごく政治とか南北関係の情報があるのに、生活レベルの情報が少ないですね。スプーンと箸で食べているということを知らない人がいっぱいいるんですから…。そういう基本的なこと、生活スタイルを伝えるようにしなくてはいけないなと思います。

河 そうですね、韓日両国民の間には色々感情が残されていることも事実です。又、これを唆しているのもマスコミだと思います。韓日いっしょですね。伊藤先生、どうですか。

伊藤 確かにマスコミの影響力は大きいと思います。でも、メディアで伝えられることは、多分に政治性を帯びているのだということを私たち自身がきちんと認識しておかなくてはなりません。むしろ、これまでのマスメディアで伝えられてきたような国と国との関係といった視点に立つだけでなく、自分の身近なところから、よりよい関係を作ることが大事ではないでしょうか。たとえば、学生の何人かは、昨年の夏、対馬でホームステイをしたようですが、そのホストファミリーと今も連絡を取り合ったりしていると聞くと、私もうれしくなりますね。そういう場合、韓国対日本というより、韓国の何々さんと日本の何々さんという関係ですよね。そういう個人と個人のつながりの中から、まわりを動かしていくような力に発展していくような気がします。

河 長谷川さん、どうですか。

長谷川 日本と韓国、いろいろ問題もありますが、僕たちの世代はそうではあってはいけないと思います。韓国も日本も変わらないと…。かといって、そんなにすぐに変わるものでもないし…伊藤さんがいわれるようにまずは個人レベルのつながりから、そしてそれが最終的に国のレベルまで進めばいいと思うのですが…。やっぱり未来志向でいきたいですね!ただ、未来を見つめていくことはもちろん良いことだけど、過去を知らないまま、未来を見つめるのも危険なことだと思いますので、過去の事実(これまでの日韓の関係など)をよく学び、知った上で、未来について考えていくことが最も重要なことだと思います。

大畑 日本人と韓国人というふうにもいつも考えてしまう傾向があります。日本人はどうですかと言われても、私は首相でもないし、国の代表でもないんだけど、なんかそういう個人と個人の関係なのに、国と国との関係みたいにして、いつもお互いに話し合ってしまうことがあります。そうじゃなくて私は日本人ですけど、好きな日本人もいるし、嫌いな日本人もいるし、嫌いな韓国人もいるわけで、日本人とか韓国人とかを超えて、いい友達はいらんです。日本人とか韓国人とは別に、いい友達関係を持つ人がたくさん増えてきたら良いと思いますよ。

河 そういうアプローチがいいですね。

大畑 そういう人が増えてきたら、かなり相互理解ができるんじゃないかな。

河 伊藤先生は韓国で生活されてどう感じられましたか。

伊藤 私は韓国で暮らすようになって2ヶ月あまりなので、いろいろな部分でまだ日本をたくさんひきずっています。どうしても、日本と比べてしまうんですね。日本ではこんなことはありえないとか、何でもこういふときにこうなってしまうんだろうかと。外国で暮らすということは、今まで自分がしよってきた「あたりまえ」とか「常識」をいったん壊してしまうくらいでないとうまくやっていけないところがありますよね。口で言うのは簡単ですが、実際の生活場面のなかで、そう簡単に折り合えることではありません。

たとえば、先日、こんなことがありました。私と同じ時期に大学に赴任した先生のお宅だったのですが、オンドルのパイプが破裂して、水浸しになる事故がおきました。その先生がアパートに帰ってきたら、いきなり5センチくらいの床上浸水状態になっていたんですから、びっくりしますよね。幸い、床に大事なものを直接置いていなかったのひどい損害にはなりませんでしたが…。でも、もし大切なもの、高価なものがダメになってしまったとしたら、いったい誰が弁償するのだろうか。こういう場合、大家さんもアパートの管理会社も責任をとらないみたいで、納得がなかったですね。

大畑 社会の経済力というか、発展の程度が違うでしょう。だから、韓国のシステムとかが十分でないという問題と文化的な問題とは違います。社会のシステムはどんどんよくなっていけば、解決するもので、それは時間の問題です。でも、文化的な問題は乗り越えられない、これはね、理解するしかありません。それはそういう国だ、そういう文化ということで、その違いはやっぱり違いとして確認すべきだと思うんです。ただシステムが遅れていたり、日本のほうが進んでいることは、日本のシステムを見て、

韓国人もなるほど良いことだと思えば、直るわけです。そう言う問題は解決すると思います。文化的問題は難しいです。私も10年いるけど、文化的な違いは超えられませんよ。やっぱり日本人なんだという再確認です。日本人だと再確認の10年でした。

伊藤 最初は、どうしても見えやすいところ、わかりやすい部分を比較してしまいます。今まで私が納得していた何かと違うと。でも、違う違うといっているけど、何の解決にもなりません。その社会がそれぞれに持っている解決の仕方というものに合わせないでかざるをえませんか。それぞれの社会のやり方を受け入れられるようになるには、ある程度の時間が必要でしょう。そうしているうちに、いろいろなよさも見えてくるのではないのでしょうか。

大畑 そういうふうに見ていくと韓国のほうがいいという面もあるんですよ。ゲンチャナヨというのは、日本にはもうないから、そういう意味では韓国人のおおらかさみたいのは大切です。日本人はギリギリしないで韓国人に学ぶべきですよ。それと、韓国人は自己主張が強いといいますが、逆に日本はグチグチして、自殺が3万人とか言います。そういう意味ではどっちが良いか、分からないところもありますね。

伊藤 そうですね。韓国人のおおらかさはうらやましくもありますね。どちらの国がよいか悪いかというのではなく、結局合う合わないかというところに落ち着くのかもしれません。それはもはや、言語を超えたものでしょうね。

河 相手の国のアイデンティティを乗り越えるのは、なかなか難しい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一般的に韓国と日本の関係を近くて遠い国だと良く言われていますが、実は両国は近くて遠い

国だと思います。違うという意味はいいじゃないかという意味ですね。違うんですから韓日両国はお互いに理解しようとする協力が何よりも必要だと思います。しかし、あまりそういう協力はしないですね。韓国と日本は同じ儒教および漢字の文化圏だから同一な所がいっぱいあると考えられますけど、予想外に少ないと思います。

同一だということは自己中心的な考えですね。お互いに自己中心的であればめぐりが生ずるはずなんです。だからとりあえず韓国と日本は違うということをお互いに強く認識しなければならんと思います。

大畑 時々同じ文化圏だから、アジア人だから共通点があると思いついてみることもあるんですけど。思い込んでいるだけで、やっぱり違うんです。アメリカ人と日本人なら最初から違うとわかるんですが…。漢字も使うし、儒教文化だから共通点も多いんじゃないかと思っているんですけど、結構そうでもないところあるわけですね。アメリカ人だったら最初から違うと思っているからいいですけど、韓国人と日本人は共通点は多いはずだと思っているんですけど、違うからびっくりしちゃうんですね。

河 長谷川さん、最後に一言。

長谷川 僕も勝手に自分の中で韓国はこうだというふうなイメージをして、その中で生活してたから、自分の考えと違うと不調和ですごく苦しい時間もありました。だけど、それをみんなとついでに韓国の社会にのまれて過ごしていけば良く理解できるし、新しい視野が持てるし、やっぱり自然体が一番です！これからも韓日文化交流協会にお世話になりながら、(また、いつの日かはお世話したい！(笑))残りの韓国での時間も有意義なものにしていきたいです。

河 長い時間、ご協力いただきまし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れを持ちましてハングル講座の座談会を終わりたいと思います。本日、いろいろご意見があったのですが、これからのハングル講座に必ず生かし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大畑さんと長谷川さんは日本へ帰るそうですが、韓国での経験を活用して韓日両国間の交流にもご努力されることを期待いたしております。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終)

韓国語講座 文化体験

去る12年間、韓国語講座を実施してきた当協会では24期より、受講生の韓国文化に対する理解を深めるため、次のような文化体験プログラムを行っています。



◀ 自分の作品作りに夢中になる。

▼ 金栄吉先生の寮を見学。



▲ 東茶領文化院の皆さんと一緒に、韓国茶のお手前を学ぶ。▶



第24期の体験日程

- 9月23日 サムルノリの体験 (チャングチヌンマウル)
- 11月4日 焼き物の体験 (尚州窯)
- 12月2日 韓国料理の実習 (金慶玉料理学院)
- 1月20日 茶道の講習 (東茶領文化院)



美味しいキムチができましたよ!!



キムチの作り方って、おもしろいよね。



さ、キムチ~ (金慶玉先生と一緒に)



色盲子供芸術団の子どもたちと共に



左右の叩き方がない違いがあるね。

第25期の体験日程

- 4月21日 サムルノリとタルチュムの体験
- 5月26日 文化遺跡地の探訪
- 7月7日 韓国料理の講習

Asian frie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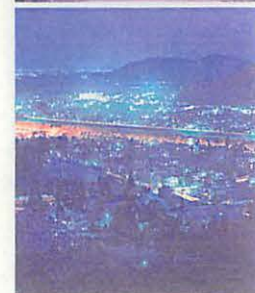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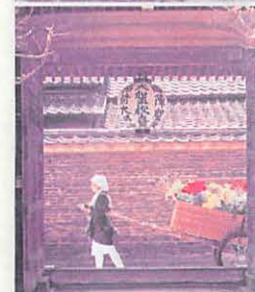


社団法人 釜山韓日文化交流協会
Korea-Japan Cultural Exchange Associ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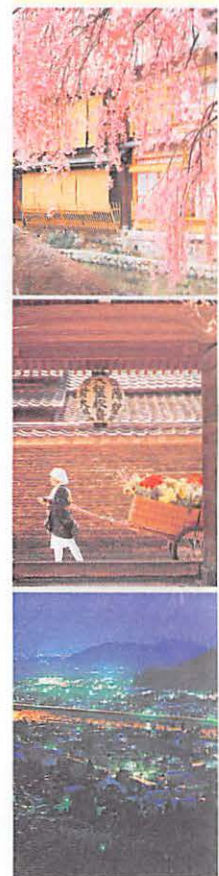
601-837
釜山市 東區 草梁3洞 1157-2 碧岩B/D 3層
1157-2, 3th Floor, Byuk Am Bldg.
Choryang - 3dong, Dong ku, Pusan, Korea
Tel : (051) 464-3554 · 465-7323
Fax : (051) 464-3554
<http://www.kojac.or.kr>



社団法人 釜山韓日文化交流協会
Korea-Japan Cultural Exchange Association
<http://www.kojac.or.kr>



2001 제2호



2001 제2호

祇園白川沿いのしだれ桜・白川女の里の花売り・春の夜景
기온 시라카와 강변의 벚꽃·시라카와의 꽃파는 소녀·봄의 야경

기간/발행일 2001년 4월14일
발행처 (사)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발행인 고 송 구
주소 부산시 동구 초량3동 1157-2 벽암빌딩 3F
Tel : (051)464-3554 · 465-7323
Fax : (051)464-3554
정기발행물 등록 (부산)아-1호
제작 빛누리기획 Tel : (051)254-2177

CONTENTS

- 4 事業報告
- 6 2001年度 事業計劃
- 8 引率所感文
/ 劉忠烈
- 10 特別寄稿
한국 청소년의 일본 대중문화
접촉상황에서 보이는
수용 논의의 문제성과 과제
/ 馬居政幸
- 17 公演特輯
• 히비키(響)
• 분라쿠(文樂)
- 22 韓國語講座 座談會
- 34 韓國語講座 文化體驗



1. 第3次 理事會 및 定期總會 開催



第3次 理事會

- ・日時: 2001年 2月21日
- ・場所: 美松
- ・内容: 3/4, 4/4分期 事業報告 및 在釜山日本總領事館 關係者와의 新年會 開催

定期總會

- ・日時: 2001年 3月23日
- ・場所: 釜山도호텔
- ・内容: 2000年度 事業 및 決算 報告, 2001年度 事業 및 決算計劃 報告



2. 애니메이션 講演會 開催

- ・日時: 2001年 1月18日
- ・場所: 釜山日報 小講堂
- ・講師: 이이구치 아쓰오(山口康男) 前 東映アニメーション研究所 所長
- ・内容: 日本 애니메이션의 成立과 現象

3. 大學生文化探訪團 派遣

- ・期間: 2001年 1月 28日~2月 6日 (9泊10日)
- ・主催: (財)釜山韓日文化交流協會
立命館大學國際教育研究推進機構
THE ACADEMIC FORUM FOR NORTHEAST ASIA
- ・後援: (財)日韓文化交流基金, 立命館大學國際地域研究所, 京都府
- ・内容: 大阪, 京都, 奈良, 神戸 등 關西의 主要地域 探訪 및 古代 飛鳥文化遺跡地 踏査, 高스튜디오 및 韓日大學生포럼 實施 등
- ・參加者: 길메기靑年會 會員 20名



韓日新世代靑年포럼

- ・포럼日時: 2001年 2月 2日(金) 09:30-14:30
- ・포럼場所: 立命館大學 이이데미오이立命會議室
- ・포럼主題: 21世紀 東北아시아 地域間の 靑年交流와 韓日大學生의 役割

4. 본라쿠(文樂) 釜山公演 開催

- ・日時: 2001年 3月 9日
- ・場所: 釜山文化會館 中講堂
- ・主催: 在釜山日本總領事館, 日本國際交流基金, (財)釜山韓日文化交流協會, (財)釜山演劇協會
- ・協力: 韓國藝術綜合學敎



5. 와라비자 히비키(響) 釜山公演 開催

- ・期間: 2001年 3月16日 ~ 17日 午後 7:30
- ・場所: 釜山文化會館 中講堂
- ・製作: 이이치(秋田縣 劇團 오이치(わらび座))
- ・主催: (財)釜山韓日文化交流協會
- ・後援: 在釜山日本總領事館, 韓國藝術總釜山支會, 駐韓日本國大使館, 韓國文化藝術振興院, 日本國際交流基金



히비키 釜山公演 歡迎會 開催

- ・日時: 2001年 3月 17日 午後 4:30
- ・場所: 國際호텔
- ・内容: 히비키 釜山公演 祝賀 및 오이치(響)藝術村 文化人 訪韓團과 釜山文化人訪日團과의 리셉션 開催



6. 第25期 韓國語講座 開講

- ・期間: 2001年 3月17日 ~ 7月28日 每週 土曜日 14:00 ~ 16:00
- ・場所: 本協會 講義室
- ・對象: 釜山・慶南 在住의 日本人
- ・講師: 初級-金美羅 中級-田美京

7. 히포패밀리클럽訪韓團 홈스테이 實施

- ・期間: 2001年 3月28日~4月 1日(4泊5日)
- ・對象: 히포패밀리클럽 會員 6家族 8名

I. 招請事業

1. 上對馬町 中・高校生 訪韓團 招請
 - ・時期：8月 3日 ~ 8月 7日(4泊5日)
 - ・人員：18名
2. 嚴原町 中學生 訪韓團 招請
 - ・時期：8月 中旬
 - ・人員：7名
3. 京都國際交流協會 派遣 韓日青少年訪韓團 招請
 - ・期間：8月12日~15日(3泊4日)
 - ・人員：20名
4. 스포츠 交流 事業
 - ・時期：8月 21日 ~ 8月 23日(2泊3日)
 - ・人員：10名
 - ・內容：쓰시마(對馬) 靑少年과의 劍道 交流
5. 히포패밀리클럽 會員 訪韓團 홈스테이 實施
 - ・時期：7月 26日 ~ 8月 7日(12泊13日)
 - ・人員：15~25名
6. OI마구치(山口)國際交流協會 派遣 日本 大學生 홈스테이
 - ・時期：11月 中旬
 - ・人員：20名
7. E이마이(高島)R.C. 派遣 靑少年訪韓團 招請
 - ・時期：協議後 決定
 - ・人員：15名
 - ・內容：靑少年 蹴球 交流

II. 派遣研修

1. 쓰시마(對馬)地域 交流 事業
 - 上對馬町 交流 事業
 - ① 大學生 派遣 事業(心の交流)
 - ・時期：7月 23日 ~ 8月 3日(11泊12日)
 - ・人員：20名
 - ② 中・高校生 派遣 事業
 - ・時期：8月 17日 ~ 8月 21日(4泊5日)
 - ・人員：16名
 - ③ 食文化 交流 事業
 - ・時期：10月 9日 ~ 10月 11日
 - ・內容：韓國 料理 紹介 및 講演
 - 上縣町 交流 事業
 - ① 大學生 派遣 事業
 - ・時期：7月 23日 ~ 8月 3日(11泊12日)
 - ・人員：10名
 - ② 中學生 派遣 事業
 - ・時期：7月 中旬
 - ・人員：30名 内外
 - 嚴原町 中學生 交流 事業
 - ・時期：8月 中旬
 - ・人員：7名
2. 大學生 京都地域 韓日新世代Forum 參加
 - ・主催：京都市國際交流協會
 - ・時期：7月20日~7月28日(9泊10日)
 - ・人員：10名
3. 協會 會員 日本홈스테이 參加
 - ・時期：7月26日~7月30日(4泊5日)
 - ・人員：15家族
 - ・地域：九州地域
4. 갈매기靑年會 「작은 地球計劃」 參加
 - ・主催：地球市民의 會
 - ・時期：7月29日~8月12日(14泊15日)
 - ・人員：6名
 - ・地域：九州地域 一帶
5. 갈매기靑年會 「외국인과의交流」 參加
 - ・主催：佐賀縣 肥前町國際交流協會
 - ・時期：8月 1日~8月10日(9泊10日)
 - ・人員：15名
6. 大學生 山口地域 派遣
 - ・時期：8月21日~8月31日(10泊11日)
 - ・人員：25名
 - ・對象：慶南地域 6個 大學校 大學生 및 靑年會
7. 釜山文化・藝術人 訪日研修
 - ・時期：10月 中旬頃
 - ・人員：15名

III. 文化事業

1. 韓國語講座 實施
 - ・期 間：3月17日~7月 28日(4個月間 每週 土曜日 9月中旬~1月末까지(4個月間 每週 土曜日)
 - ・受講料：無料(文化體驗 參加費는 別途)
 - ・場 所：協會 講義室
2. 第10回 日本語作文 콘테스트 開催
 - ・主催：在釜山日本國總領事館과 共同主催
 - ・日 子：6月 2日
 - ・場所：在釜山日本國總領事館 日本語講座 教室
3. 高校生 日本語말하기大會 開催
 - ・日 子：7月14日
 - ・主催：釜山韓日文化交流協會, 釜山中等日本語 教育研究會, 上對馬町國際交流協會
 - ・後援：釜山市教育廳, 在釜山日本國總領事館
 - ・資格：釜山 地域 高校生으로, 學校長의 推薦을 받아야 하며 日本에 1年 이상 滞在 經驗 이 없는 學生
4. OI마구치 키리리博覽會 參加團體 紹介 및 派遣
 - ・期間：7月 14日~9月 30日
5. 大學校 日本語演劇 支援事業
 - ・時期：7月 下旬頃
 - ・內容：日本語 演劇 實施 大學 各 1~2個 大學을 選定하여 支援
6. 第18回 日本語弁論大會 開催
 - ・主催：在釜山日本國總領事館과 共同主催
 - ・時期：10月 下旬
7. 日本 文化 紹介展
 - ・時期：11月 初旬
 - ・內容：日本 포스터展示會 등
8. 「韓日友好的 밤」 開催
 - ・時期：11月 中旬頃
 - ・內容：協會 事業報告 및 韓日 文化公演 등
 - ・招請人員：會員 및 國內外 有關團體 關係者 등 250余名

IV. 出版事業

- OI마인프랜드 發刊 (年3回)
 - ・內容：協會 事業內容 및 訪日感想 등
 - ・部數：各 500部 内外

V. 2001年度 日本語能力試驗 實施

- ・願書接受：8月27日~9月15日 豫定
- ・試驗實施：12月 2日(日) 豫定

VI. 事務局 移轉 計劃

- ・時期：4月下旬頃
- ・場所：現在 建物 3層
- ・既存의 5層은 文化講座의 空間으로 活用

※ 具體的 交流時期는 日本 團體와의 協議後에 最終 決定.

대학생 방일연수단 인술을 마치고

95년도 일본 방문을 마치고 퇴직 이후 2001년 연초에 부산 지역 각 대학의 젊은이 19명을 인솔하여 9박10일간의 關西지역 문화유적지 탐방과 홈스테이를 위한 교육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먼저 떠나기 전 몇 번의 회합에 참가하면서 필자 나름으로 일본의 문화, 가정 그리고 양국 청소년 친선 교류를 위한 참고의 이야기를 할 기회를 가졌다. 별로 충분한 시간과 예비 준비가 없어 日本人의 價値觀, 家庭教育의 基本을 다음과 같은 말들로 나열 설명해 보았다.

첫째, 일본 사람들의 가정 교육의 대들보를 뒤로 보느냐란 과제이다. 허기야 산업화와 능력화가 고도로 요구되는 한국이나 일본도 가정교육이 비숙해져 가고 있음은 쉽게 예상될 것이다. 우리의 가정교육은 뭐라 해도 「공부해라」로 집약될 것이다. 아마도 대학에 들어온 젊은이들은 초등, 중등, 고교시대를 거치면서 이 말의 세례를 귀가 닳도록 듣고 성장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일본도 이 점에서는 별로 틀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일본인의 가치관의 기저에는 수치(恥)를 남에게 보이지 않으려는 의식이 강하게 깔려 있는 것으로 짐작한다. 이를 가정교육면에서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 훈련이 행동거지(身), 몸(身)을 아름답게(美) 보여야 함을 강조한다. 이 글자를 한쳐 시즈케(躰)라 부르며 가정 교육의 근본으로 하고 있을 것이라는 설명을 피했다. 이 점을 눈 여겨 관찰하여 우리



劉忠烈
關西文化訪問團 團長
(社)釜山韓日文化交流協會 理事
釜慶大學校 名譽教授

도 이 면에서 행동의 양식으로 삼기를 부탁했다.

둘째, 일본도 우리나라를 통해 일찍부터 유교와 불교를 도입 흡수하면서 통치체제와 가정 윤리의 기본을 세웠다. 불경은 한자로 표기된 문서이기에 유교와 융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에 불교와 유교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인다. 그러니 유교가 한국과 일본의 가치관 윤리의 기본이 되었다. 그런데도 양국간의 생활이나 의식행동에 엄청난 단층을 보임

은 유교 흡수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근래 미국에서 출간된 후란시스 후쿠야마 著의 TRUST란 책이 참고가 될 것을 이야기했다. 유교란 따져보면 집(家)과 가족의 영원성, 역사성을 신앙의 단계로 끌어올린 이념, 종교일 것이다. 우리의 유교는 철저하게 가부장제를 승화시키며, 집과 혈연의 계마인사프트로 가치를 영결케 하는데 유교가 결정적인 역할을 맡았다. 그런데 일본은 집(家)을 계열사프트로 발전시키는데 성공한 사회일 것이다. 데릴사위에게 모든 가업을 위임하는 방향으로 전승시키며, 대를 이어 가업을 변장케 하는 역사를 가졌다. 이것이 내 아들 아닌 남, 사위를 믿는 첫걸음이다. 여기에서 남을 믿는 두터운 신용이 발생했다고 후쿠야마 교수는 저술하고 있다. 아마도 일본 제일의 양반 집안은 천황가일 것이고, 평민에서는 鹿島건설회사 집안일 것이다. 이 집안은 딸만 낳으니 데릴사위를 불러 가업을 전승시켜 역사의 연속을 실현시킨 가문이다. 똑똑하고 훌륭한 사위를

모셔와 경영을 맡기니 실패할 리 없을 것이란 이야기도 했다. 사실 우리의 낮은 신용 수준도 따져 보면 내 자식 아니고는 누구도 못 믿겠다는 역사가 우리의 사회를 주름지게 하고 있을 것이란 이야기를 통해 높은 신용사회 진입을 위해 일본에서 배워오기를 부탁했다.

첫날 오사카(大阪)에 들어가 가장 편리한 곳에 투숙하여 학생들에게 자유롭게 시내 탐방을 시켜 일본의 공기를 맛보게 했다. 특히 이번 여행에서는 여학생이 16명이나 되어 야간 통행에 위험을 느껴 남학생으로 하여금 보호를 부탁하기도 했다. 가만 살펴보니 사실 부산 지역의 대학생 중 활달하고 재주 있는 쪽은 여학생들 몫이다. 웬만한 가정에서도 딸아이들은 서울에 유학하기를 꺼린다. 그러니 부산지역의 대학 입학 성적은 전적으로 여학생들이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남자들은 웬만하면 무리가 되더라도 서울에 보내 공부시키려는 경향이 농후한 곳이 부산의 특색이다. 그래서 그런지 여학생들이 남자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하소연을 듣는다. 이 점에서 여학생들의 야간 행동은 앞으로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것 같다.

둘째날부터 문화유적지 탐방이 시작되었다. 먼저 나라(奈良)지역의 고찰과 신사 관광은 학생들에게 많은 감명을 주었을 것이다. 숙소를 오사카에서 교토(京都)로 옮기면서 사찰 탐방과 포럼 준비로 바쁜 시간을 학생들 나름으로 쪼개어 활용했다.

리츠메이칸(立命館)대학에서 벌어진 포럼이 이번 여행의 가장 기억될 주요 행사였다. 특히 코디네이터의 훌륭한 誘導에 따라 한국을 방문한 학생들로 하여금 인상을 이야기하는 광경을 통해 많은 시사점을 제공했다. 몇몇 선택된 학생만의 일과성 여행으로 일본과 한국간의 우호 선린관계를 세운다함의 허구를 의식하

면서, 진지하고 항구적이며 보다 많은 젊은이가 교류의 기회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자세에서 한일간의 밝은 장래를 점칠 수 있는 기회였다.

필자의 이번 여행에서 얻은 개인적 인상을 두 가지만 요약해 본다. 5년만에 찾은 일본에서 변화된 것 중 하나가 숙박업소 이디나 비누가 없다는 사실이다. 수질 오염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비누를 쓰지 않고, 환경친화적인 샴푸로 대체했다는 사실에 놀랐다. 말로서는 환경정화를 어디라도 소리 높여 외치는 쉽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비누를 쓰지 못하게 한다는 행위는 그리 쉽게 이룩되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우리나라도 몇 년 뒤쯤부터 이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부터 모든 사람이 하나밖에 없는 이 지구를 살리려는 노력을 직접 행해야 한다는 신호가 될 것이다.

둘째는 학생들로부터 들은 지식으로 북오점점포를 방문했을 때이다. 일본의 인쇄물 대량 체제에서 필연적으로 생긴 판매조직인데, 이곳에서 신간서점에서 찾지 못한 필견도서를 찾아 싼값에 구입하는 재미를 보았다.

일본을 더욱 이해하고 그들의 가치의 진수를 얻기 위해 앞으로의 여행에서는 꼭 공중목욕탕 견학을 권하고 싶다. 이곳에서 그들의 공유제산을 아끼는 습성,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행동, 물을 아끼며 수질 오염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등의 학습을 배울 기회를 찾을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끝으로 모든 학생이 열심히 지도를 따르며, 일본인 가족과 이별의 슬픔을 못 가누어 눈물 흘리며 석별을 아쉬워하던 정경, 이러한 일들이 평생을 두고 잊지 못할 재산으로 마음 깊은 곳에 침전되어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할 것을 의심치 않는다.

5. 其他 交流

(1) 釜山・對馬 中・高校生 交流事業

◆ 上縣町 大渚中學校 & OILK伊奈中學校 夏季交流

- ① 期間：2000年 7月21日～7月24日
- ② 場所：上縣町
- ③ 人員：30名(引率 5名 學生 25名)
- ④ 內容：홍스테이, 시골놀이 및 咖啡館 演奏 등 文化交流 實施

◆ 上對馬町 中・高校生 交流

- 訪韓 交流
- ① 期間：2000年 8月 7日～8月11日(3泊4日)
- ② 人員：上對馬町 中・高校生 21名
- 訪日 交流
- ① 期間：2000年 8月20日～8月24日(3泊4日)
- ② 人員：中學生 -11名(京山中)
- 高校生 - 7名(釜山外高 3, 德明情報女高 4)

◆ 嚴原町 中學生 交流

- 訪日 交流
- ① 期間：2000年 8月16日～8月18日(2泊3日)
- ② 人員：12名(三聖中 6名 釜一女中 6名)
- 訪韓 交流
- ① 期間：2000年 8月18日～8月21日(3泊4日)
- ② 人員：嚴原町 中學生 7名
- ③ 內容：釜山 홍스테이 및 시골놀이 體驗 등 交流 實施

(2) 東亞大學校 音樂學部 音樂交流 後援

- ① 期間：2000年 5月 4日～5月 7日
- ② 內容：茨城縣合奏聯盟과의 合同演奏會 및 홍스테이 등 文化交流 實施
- ③ 參加者：東亞大學校 音樂學部 引率教授 및 大學生 30名

6. 文化行事

(1) 金滿里氏 招請 交流會 後援

- ① 日字：2000年 5月12日～15日(懇談會 13日)
- ② 主催：釜山女性障礙人連帶協議會

- ③ 內容：在日韓國人0101 障礙人으로 劇團「慾變」의 代表 金滿里씨를 招請하여 韓國 女性 障礙人들과의 懇談會 및 交流會 實施

(2) 日本 唱歌 講演會 開催

- ① 日字：2000年 8月29日 18:30～
- ② 講師：安田 寛 弘前大學 教育學部 教授
- 민정환 韓國藝術綜合學校 音樂院 教授
- ③ 演題：韓日 近代 音樂의 源流을 찾아서(唱歌의 誕生과 變遷)
- ④ 場所：釜山日報社 小講堂
- ⑤ 主催：(社)釜山韓日文化交流協會, 在釜山日本國總領事館

(3) 上對馬町 吳屯(오뜨돈)祝祭 民俗公演團 派遣

- ① 期間：2000年 7月 1日～7月 3日(2泊3日)
- ② 人員：慶星大 音樂團 「아름다운」 5名

(4) 日本 人形展示會 開催

- ① 期間：2000年 7月10日～7月15日
- ② 場所：釜山市廳 展示室
- ③ 展示作品數：70点



- ④ 主催：(社)釜山韓日文化交流協會, 在釜山日本國總領事館, 國際交流基金

(5) 韓日文化造形展 後援



- ① 期間：2000年 10月18日～10月20日
- ② 主催：釜山韓日文化會
- ③ 場所：釜山日報社 1層 釜日갤러리
- ④ 內容：釜山文化人訪日研修團 笑笑01分野 作家 7名과 釜山 居住 日本人들의 作品 展示 및 交流 實施

7. 第17回 日本語辯論大會 共同主催



- ① 日時：2000年 11月 4日(土) 13:00～17:00
- ② 場所：慶星大學校 情報館 小講堂
- ③ 對象：嶺南圈 및 釜山の 各大學 學生中 日本語專攻 으로 하는 大學生
- ④ 主催：(社)釜山韓日文化交流協會, 在釜山日本國總領事館
- ⑤ 後援：KBS釜山放送總局, MBC釜山文化放送, PSB釜山

放送, 釜山日報, 國際新聞, 釜山每日新聞

- ⑥ 協贊：島根縣, 下關市, 福岡國際交流協會參加
- ⑦ 人員：19名
- ⑧ 入賞者
- 《最優秀賞》
- 金正敏 (釜慶大學校 日語日文學科 3年)
- 《優秀賞》
- 金美秀 (東西大學校 日語日文學專攻 2年)
- 金藝英 (蔚山大學校 日語日文學科 3年)
- 《獎勵賞》
- 車昇恩 (東亞大學校 日語日文學專攻 2年)
- 姜大薰 (釜山大學校 日語學專攻 3年)
- 金貞延 (慶北大學校 日語日文學科 2年)
- 《努力賞》
- 朴美貞 (釜山外國語大學校 日本語科 3年)

8. 「韓日友好的 밤」開催

- ① 內容：事業實績 報告 및 晚餐, 公演 등
- ② 日時：2000年 11月 17日(金) 18:30～
- ③ 場所：호텔롯데부산 3층 그린스퀘룸

9. 2000年度 日本語能力試驗 實施

- ① 日字：2000年 12月 3日(日)
- ② 接受期間：2000年 8月28日～9月23日
- ③ 對象：日本語專攻 母國語로 하지 않는 者
- ④ 主催：(社)釜山韓日文化交流協會, 國際交流基金, (財)日本國際教育協會
- ⑤ 後援：日本 外務省, 文部省
- ⑥ 接受人員：22,253名
- ⑦ 協力團體
- ・大邱地域：大邱國際教育交流Center
- ・馬山地域：昌信大學 極東社會文化研究會
- ・蔚山地域：蔚山大學校 日本研究所



金 侑 美

釜山大學校 國際語文學科 講師

가부키 그리고 와라비자

일본, 그 가깝고도 먼 나라에 대한 관심은 이제 더 이상 낮설지 않다. 실로 '日本學'이란 이름으로 전개된 全世界人의 關心과 論議는 多樣한 方法論的 接近을 통해 日本, 日本人을 多角도로 說明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이기까지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상에 대한 모연함이 남는 것은 비단 한국인 이기 때문에 느껴야 하는 韓·日間의 微妙한 明暗 때문만은 아니리라. 어찌면 그것은 한 국가나 민족의 삶의 양식에 대한 總體性을 把握한다는 學文 자체가 지닐 수 밖에 없는 限界-인간 삶의 복잡성과 다양성이란 논리적 틀 밖의 사각지대가 더 많다-때문이기도 하다.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일본 문화의 어떤 틀을 제시하려 했던 미국의 베네딕트(Ruth Benedict) 여사는 역작 「국화와 칼」(The chrysan-themun and sword)을 통해 平均的인 日本人의 行動과 思考의 틀을 說明해 보임으로써 일본에 대한 서방사회의 인식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이 베네딕트 여사의 아이러니는 단 한번도 일본을 방문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있다. 부분적 체험으로 전체적인 방법론을 놓친다는 이유로, 學問的 研究의 嚴密性을 維持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난 초청의 일방적 의도나 주관적 체험을 객관적 인식으로 확대시킬 오류의 여지에도 불구하고 한·일 문화교류의 명분으로 일본을 방문했고, 감히 그것을 이야기하려 하고 있다.

내가 본 日本, 그리고 그 文化는 경이와 충격으로 뒤범벅된 엄청난 刺激 그 자체라고 밖에 표현할 길이 없다. 일견 渡來文化일 것으로 막연히 짐작해 오던 나의 自尊心으로 뼈막하게 흠쳐 본 도쿄(東京)의 미술품과 교토(京都)의 문화 유적은 확실히 독특한 일본만의 문화였고, 중국을 모태로 하는 아시아문화권의 또 다른 일면이었다. 그것은 바로 일본인 특유의 創造的 模倣 정신이 빚어낸 그들만의 文化的 結集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문화와 일상 속에 은근히 감추어지고 날카롭게 번득이는 日本의 精神과 底力

이었다.

도쿄 시내 현란한 빌딩 숲 한가운데 당당히 자리잡은 고풍스런 가부키좌(歌舞伎座)에는 어떤 의례에도 견줄 수 없는 엄숙하고 진지한 자세로 일본 전통문화를 즐기는 두터운 관객층이 있었고, 아키타(秋田)와 와라비자(わらび座)에는 예술과 인생을 혼합해 한편의 이벤트처럼 생을 즐기는 熱情的인 藝術人들이 있었고, 또 한편의 뮤지컬 세트를 위해 150만 송이 종이 빛꽃을 접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獻身的인 平凡한 日本人들이 있음을 보았다.

'전비의 나라'에서 살아온 나는 '사무라이의 나라' 일본을 분명히 보고 왔다. 칼날의 예리함을 통해서 철두철미함과 침착함의 정신을 길렀고, 그 칼날을 칼집에 다시 감추어 넣어야 하는 현실을 통해서 지혜를 익혔고, 그 지혜는 문화적 전통으로 축적되어 오늘날 일본 문화의 튼튼한 뿌리가 되어 주는 현실을 보았다. 그것은 때론 부드러운 감동으로 한없는 부러움을 자아내기도 했고, 때론 비수같은 자극으로 싸늘한 긴장감을 던지며 다가왔다.

돌아오는 마지막 날, 간사이(關西)국제공항에서 서로가 너무 많아 외형적으로 거의 식별 안되는 한·일 두 민족을 체험했고, 한시간 남짓 비행거리를 사이에 두고는 宿命的인 關係로 동아시아 한복판에 놓여있는 두 나라의 現實을 보았다.

현해탄을 사이에 두고 반목과 대립, 갈등과 질시를 되풀이 해왔던 과거의 한·일 두 나라. 이제 21세기 세계 무대를 함께 헤쳐나가는 진정한 同伴者의 關係를 形成하는 큰 素望을 펼쳐 보았다.





宋善美

新麗大學校 日語日文學科 4年

소중한 추억의 섬 쓰시마

2000년 여름, 나는 대학 4학년으로서의 부담감과 스트레스에 지쳐있었다. 졸업과 취직이라는 난관을 앞두고 있었기에, 학창시절 마지막 여름방학에 무언가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든 것도 그 때문이었으리라. 未知의 世界로의 旅行. 그것이 이 여행을 하게된 이유였다. 그러나 내 생애 最初の 海外 旅行地가 쓰시마(對馬)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해보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누군가 후회하느냐고 묻는다면 절대 그렇지 않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여행이었기 때문이리라. 또한 그토록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살고 있는 그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해변 속에서 살고 있는지 알기 때문이다. 자동차 소음과 변화한 도시 생활, 작은 콘트리트 상자 속에서 사는 것이 오래 당연한 부산토박이인 나에게 있어서, 조용하고 자연에 둘러싸인 쓰시마는 신비롭고 아름다운 섬으로 기억될 수 밖에 없다. 늘 그렇듯이 잘 모르는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간다는 두려움과 새로운 것들을 접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교차했었다. 출발 당일 새벽까지 태풍 때문에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순탄하기만 한 여행은 아니었던 것이다. 제일 처음 바다 너머로 보인 쓰시마를 봤을 때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었다.

울창한 산들과 드문드문 보이는 집들 몇 채. 뭇하고 지내야할지 과연 잘 지낼 수 있을지 내 머리 속은 온통 그런 생각들로 가득했다. 그렇지만 그런 생각들을 날려보낸 가족과의 만남이 있었다. 그로 인해 나의 그런 생각들이杞憂에 지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에게 익숙한 변화가라든지, 극장, 패스트푸드점, 자동차 소음, 시끄러운 음악소리, 놀이시설 등과는 너무나 다른 뽀뽀하게 들어선 삼나무, 여기저기 들쭉날쭉 자란 예쁜 들꽃,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 다니는 까마귀와 매들, 좁은 산길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그곳 생활에서 나는 항상 아름다운 自然環境에 感謝하고 그 속에 있음을 즐길 수 있었다. 물론 내 스스로 익숙한 도시 생활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그곳 생활을 배우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적응할 수도 있었고 눈물 겹도록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도 있었던 것이리라. 내가 그때까지 갖고 있던 모든 선입견을 버리고 바라 보니 약간의 불편함보다는 좋은 점들을 찾을 수 있었고 즐길 수도 있었다. 일반 여행과는

달리 홈스테이였기 때문에 그 利點을 살려 일본의 가정문화를 직접 접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소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2일간 여러 일본 음식을 맛볼 수도 있었고, 전통식 다다미(畳)방을 살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매일 불단을 보며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었다. 나는 일본 가족의 조상이지만 도착했을 때, 그리고 돌아올 때 혼자서 조용히 빌었다. 모두와 잘 지내고 싶다고, 그리고 고맙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집 근처 또는 도로 옆에 세워진 무덤, 물가에 세워진 神社, 투명한 느낌의 깨끗한 바다, 한여름 밤의 불꽃놀이, 내온사인 대신에 깜깜한 밤하늘을 수놓던 해아릴 수 조차 없던 별빛들,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다. 능숙치 않았지만 가족들과 여러 가지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었던 것도 즐거운 일이었다. 어색하게 神社에 들어가 소원도 빌어봤고, 茶道도 배워봤으며 공들여 기모노(着物)를 입어 보면서 나름대로 일본 문화를 느껴봤다고 생각해도 괜찮으리라 생각했다. 이 모든 것들은 보통의 여행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이었기에 고마울 따름이다. 더위를 유난히 많이 타던 초보 여행객이 돌아올 쯤에는 쓰시마의 뜨거운 햇살마저 좋아하게 되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변화인 것이다. 우리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카미야카타(上縣)의 모든 분들 덕분에 많은 것을 얻어 돌아올 수 있었다. 그리고 나 역시 한일관계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리라 다짐하게 만들었다. 앞으로로도 일본에 있는 소중한 나의 가족들과 계속 좋은 사이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지. 나의 학창시절 마지막 여름은 쓰시마와 함께 즐거운 추억 속에 남게 되겠지만, 또한 지금부터 내가 해쳐 나가야 할 모든 일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좁은 산길과 깨끗한 바다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한국어강좌 좌담회

■日時: 2000년 11월 2일(木) 19:00-

■参加者: ・伊藤 浩美(이토 히로미) 釜山外國語大學 専任講師

・大畑 龍次(오오하라 류지) 釜山經濟大學 専任講師 ・長谷川 和正(하세가와 카즈마사) 釜山教育大學校 交換學生

■司會: 河 淑 賢 (社)釜山韓日文化交流協會 事務局長

河 안녕하세요?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한국어강좌 수강생들과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은 부산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이 한국이나 한국 문화, 혹은 부산에 대한 소감 또는 한국어강좌에 대한 의견 등을 듣고 싶어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1회 실시되는 한국어강좌의 내용, 진행방법, 교재 등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좋은 의견이나 방안이 있으시면 기탄없이 말씀해 주십시오.

伊藤 선생님, 한국에 오신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까?

伊藤 부산은 2년전에 한 번 와 본 적이 있어요. 이를 동안 머물면서 학회에 참석하느라 조금 남은 시간에 관광을 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생활하고 놀란 것 중에 하나는 버스였다고 할까요. 대학에서 강의를 맡아 생활한지 3일째 되던 날, 대학교에서 아파트까지 버스를 타고 왔는데, 내리러고 생각했던 버스정류장에서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정류장에서 내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벨은 높았는데, 내릴 준비를 하고 출구에 서 있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버스가 주행중에 차내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 안 되거든요. 거의 매일 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익숙

해지는데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요. 운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조마조마해지고 클랙슨도 시끄러워요. 내리고서야 마음이 놓입니다.

河 長谷川씨는 한국에 온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長谷川 저는 8개월째입니다.

河 처음 한국에 오셨을 때의 인상은?

長谷川 실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한국에 왔었는데 그 뒤로도 한국에 올 기회가 있었고 이번이 다섯번째입니다. 다섯번의 방문 가운데 다섯번 모두 여기 부산에 올 기회가 있었고 지금 생각해 보면 이 곳과 예전부터 인연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웃음) 처음 왔을 때는 10년전 일이라서 그다지 확실히 기억하지 않지만, 거친 자동차 운전과 소란스런 아줌마 목소리가 인상에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河 大畑선생님은 한국에서의 생활이 상당히 오래 되었다고 하는데요. 부산에서 사신지는?

大畑 8년 정도입니다. 일본인으로서의 감각은 많이 없어졌지요. 가장 처음 왔을 때가 10년전 옛날입니

다. 그 때의 인상 중 하나는 활기가 넘친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로변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시장 분위기가든지 아주 활력이 넘쳤습니다. 또 하나는 화려하다는 것입니다. 집 색깔도 다양하고 옷도 원색이 많고 화려해서...그래서, 매우 활기가 넘치고 화려하다는 인상이 강했습니다.

河 부산에서 8년 정도 생활하셨다고 했습니다만, 편리한 점이라든지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大畑 글쎄요. 저는 생선을 매우 좋아해서 부산이 마음에 듭니다. 생선회라든지 많이 있어서 좋지만, 문화시설은 서울과 비교했을 때, 제2의 도시로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면이 불편하다고 생각됩니다.

河 長谷川씨의 부산 체제는 大畑선생님의 10분의 1 정도입니다만, 부산 생활은 어때요?

長谷川 예, 지금 무척 즐겁게 지냅니다. 처음에는 친구도 없었고, 이곳 사정이나 대학에 대해서도 잘 몰랐지만, 지금은 길거리 포장마차의 아줌마들과 친해져서 특별 서비스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부산의 분위기를 좋아하고, 이 고장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기운이 납니다. 저는 서울에도 자주 가지만, 부산을 더욱 좋아합니다. 제2의 고향이라는 느낌이지요.(웃음)

河 伊藤선생님은 어떻습니까?

伊藤 부산의 좋은 점은 경치가 아름답다는 거라고 할까요. 바다가 있고 산이 있어서, 가까이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어요. 전에 금정산에 등산을 갔었는데, 동경에는 가까이에 그런 장소가 없거든요. 제가 사는 아파트 옆에는 바다가 있어서 시간이 있을 때 산책을 하곤 했는데,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좋아요.

河 부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大畑 부산이나 서울과는 관계없이 한국인은 친해지

면 대단히 친절하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불친절합니다. 친하게 되면 삶을 정도로 접근해 오지만 그렇지 않으면 대단히 불친절해서, 그 차이를 느낍니다. 서울 사람이건 부산 사람이건 관계없이.

伊藤 예를 들면 어떤 면입니까?

大畑 길에서 뭔가 물어도 일본과 비교해 보면 매우 불친절합니다. 하지만 10년 정도 있어보니 집원들이나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서비스도 대단히 좋아졌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정말 불친절했지만.

河 부산에서 기억에 남을만한 일이라도 있습니까?

長谷川 여러가지 일들이 있어서 무엇보다 말해야 좋을지 모르겠지만, 대학 친구들, 갈매기회 친구들, 그 외 여러가지 계기로 알게된 사람들과 함께 술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었던 일이겠지요. 최근 일로는 친구와 선배들이 생일파티를 열어줬던 것. 커피숍을 빌려 집원들까지 함께 축하해주었던 생일파티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겁니다.

河 만약에 한국이나 부산을 친구에게 소개시켜 준다면?

長谷川 많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광안리 해변이 마음에 듭니다. 최근 광안대교 건설이 추진되어 넓은 바다가 다 내다보이지 않게 되어 아쉽지만, 저녁 늦게까지 해변에서 여러가지 즐겁고 떠들썩하게 지낼 수 있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즐거워집니다. 그 외에는 맛있는 가게인가... 저는 삼겹



살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학생들까지 잘 먹으려 갑니다만, 싸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야채도 많아서... 꼭 친구들을 데리고 가서 먹이고 싶습니다.

大畑 전 역시 매운탕이에요요, 서울에서는 아무래도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매운탕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먹으면 맛있다고 합니다.

伊藤 너무 맵지 않아요?

大畑 맵지만 여러 가지 맛이 있어서 좋습니다.

河 伊藤선생님, 한국에 오시기 전에 한국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셨나요?

伊藤 잘 안다고는 할 수 없지만, 한국에는 지금까지 두 번 와 본 적이 있어서 분위기는 알고 있었습니니다. 책을 읽거나 잘 아는 사람에게 묻거나 해서... 하지만 역시 여기서 생활해 보고 여러 가지 알 수 있겠다고나 할까요.

河 오늘 참가하신 세 분은 모두 대학에서 가르치거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국 대학생과 대학 문화, 분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까? 伊藤선생님?

伊藤 학생들은 예의바르고, 선생님을 존경해야 할 대상으로 깊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도 대학교 수라고 하면 사회적 지위가 높은 편이라고 생각하지만, 한국만큼은 아닙니다. 캠퍼스에서 우리 클래스 학생들을 만나면 무척 정중히 인사합니다. 벤치에 앉아 있으면, 일어서서 인사를 할 정도니까요. 하지만 재미있는 것은, 내가 맡고 있는 클래스 학생뿐이라는

겁니다. 다른 학과나 다른 클래스 학생들은 전혀 관계없는 듯한 얼굴을 하니까요, 그 차이 크다는 생각이 드네요.

河 長谷川씨는 학생 입장에서 느끼는 한·일대학의 분위기 또는 차이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長谷川 제가 다니고 있는 대학과 비교해 보면, 우선 대학에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리고 쉬는 날에도, 학생들이 항상 많습니다. 학교에 수업이 없어도 자기 학과방에 모여 기타를 한 손에 들고 친구들과 이야기하거나, 배달을 시켜 함께 밥도 먹고 피구도 하고, 그 외에 선후배간이 친밀해서 형, 누나, 동생이라고 부르는 것에 처음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함께 있어서 즐겁고 매우 좋은 분위기입니다. 아! 저녁에는 소주를 사서 학교 마당에서 교문이 닫히는 딱두한 시간까지 마시고 있고, 기타 소리를 늘어... 정말 좋은 느낌입니다. 대학에 술을 가지고 와서 마신다는 건 흔한 일이 아니라 놀랐습니다. 술을 함께 많이 해서인지 사람들간의 관계가 일본과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강하다고 느꼈습니다.

河 長谷川씨는 남은 유학생들 동안 계획이 있다면? 長谷川 음, 제가 가장 소중히 하고 싶은 것은 인간관계와 친구를 만드는 것이겠지요. 한국과 일본은 가까운 나라라서 유학이 끝나더라도 간단하게 올 수 있으니까 인간관계는 물론, 여러가지 경험, 좋은 추억들, 한일 양국 모두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는 유연한 발상, 또 지금은 중퇴한(웃음) 어학력이라든지 앞으로 계기될만한 것들을 착실히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河 그렇군요, 大畑선생님은 대학에서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에서 일본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大畑 고등학생들에 대한 첫인상은 가엽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인문계 고교라든지 진학을 위한 학교는

아침 7시경부터 저녁 11시경까지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 가운데도 몸이 아파서 자는 아이가 곧잘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지 않고 있기도 합니다. 매우 가엽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생들도 제수학원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반대로 대학에 들어가면 역시 공부하지 않고 놀아버리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도 자주 있는 경우입니다만, 한국의 경우가 더 입시경쟁이 심하지요. 대학과 고등학교의 이러한 갭은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을 존경하는 것은 좋지만, 선생님 쪽에서도 수수방관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이 문제입니다.

河 한국의 독특한 대학 문화가 있다면 소개를 해주시죠.

伊藤 저는 아직 부담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잘 모르지만, 학생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 인간관계가 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이 좋은 친구끼리는 정말 항상 함께 있고 싶어합니다. 서로 깊은 연대감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에서는 부럽지만 그 반면, 그 이외의 사람들과는 잘 지내려고 하지 않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같은 학과라도 같은 학년 나이가 같은 클래스라도 관계 없는 사람은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수업에서는 그런 관계를 넘어 누구라도 함께 회화연습과 그룹 활동을 해 주었으면 하지만, 모두 별로 탐탁치 않아 해요.

河 그것은 한국 대학생들의 친구를 사귀는 폭이 좁다는 것입니까?

伊藤 좁다고 봐야 할지, 깊다고 봐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만...일본의 대학생들은 그런 두터운 교제를 피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가볍게 사귀는 것 같아요. 특정인과 깊은 인간관계는 번거롭다고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것은 대학생에게 한해서만이 아니라 일본인 모두가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河 大畑선생님이 느끼는 한국의 독특한 대학 문화가 있다면.

大畑 10년전 제가 오기 전에는 학생운동의 이미지가 강해서 제가 왔을 때도 연세대학교는 학생운동의 거점이었기 때문에, 매일같이 데모라든지 기동대의 최루탄이며... 그리고 당시에는 항의하는 학생들의 연속적인 자살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상당히 정치성이랄까, 사회에 관한 관심이 후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인 생활, 개인적인 취미라든지 그런 놀이, 패션이라든지, 관심사가 그런 쪽으로 가버려서 유감입니다. 좀더 사회적인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河 글썽요, 한국인들의 장점인지 단점인지 잘 모르지만 정치에 대해서는 관심이 높은 편이지요. 그러나 요즘의 대학생은 정치에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일본도 같은 경향이있지요. 60년대까지는 학생운동이 대대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는 비슷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大畑 비슷하지만 일본과 같이 되는 것이 좋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한국 대학생들이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학생운동이었지만, 노동운동이라든지, 사회운동, 사회도 변해왔지만, 역시 학생들은 사회에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河 한국에서 학생운동의 이슈가 바뀌었습니다. 1980년대까지는 독재에 반대하고 민주화를 위한 학생 운동이었지요. 요즘은 물론 민주화된 경향도 있지만, 변화가 많은 것 같아요.

伊藤 그만큼 평화스러워졌다는 것인가요?

河 그렇기 때문에 노벨평화상을 받은 것이겠지요.(일동 웃음)

※ 다음호 계속

河 こんばんは。お忙しいところにもかかわらず、ご参加いただきまして誠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今日、このように韓国語講座の受講生達とお会いの機会を持つことになったのは釜山に住んでいる日本人の韓国や韓国の文化、あるいは釜山に対する所感、または韓国語講座に対するご意見を聞かせてもらいたかったからです。

特に、週1回行われる韓国語講座の内容、やり方、教材等に皆様の声を聞きたいと思いました。韓国語講座に良いご意見、方案があれば、忌憚なくおっしゃってください。

伊藤先生、韓国にいらしゃったばかりなんですけど、釜山の初印象と言えば、どうですか。

伊藤 釜山は2年前に一度来たことがあります。2日間滞在して学会に出席し、ほんの少し観光したのですが。こちらで生活してみてもびっくりしたこと1つはバスですね。大学で教え始めて3日目。大学からアパートまでバスで帰ったんですが、降りようと思っていたバス停で降りられなくて、次のバス停まで行ってしまいました。ベルは鳴らしたんですが、降りの準備をしなかったらなかったことを知らなかったんです。日本のバスは走行中、車内をウロウロしてはいけません。ほとんど毎日、バスを利用していますが、未だにバスは慣れません。運転しているのを見るとヒヤヒヤするし、クラクションはうるさいし、降りるとぼっとしますね。

河 長谷川さんは韓国に来てからどのくらいですか。
長谷川 ぼくは8ヶ月目になります。

河 最初、釜山においでになった時の印象は？
長谷川 実は、僕が初めて訪韓したのは中学1年生のときで、その後も何回か訪韓する機会があり今回で5回目なんです。5回の訪韓のうち5回ともここ釜山に来る機会があり、今考えてみるとこの町と昔から縁があったのかなと思いますが、(笑)初めて来たときのことは10年も前のことではっきり覚えてないけど車の運転の粗さとかたましいアジアの音が強い印象として残っています。

河 大畑先生は韓国の生活がずいぶん長かったそうですが、釜山での暮らしはどのくらいですか。
大畑 8年ぐらいです。あまり日本人としての感覚は少なくなりました。一番、最初に来たのは10年前ぐらいの昔です。その時の印象はエネルギーだというのが一つですね。道端で商売をしている人達もたくさんいるし、市場

の雰囲気とか、非常にエネルギー感というひとつ。もう一つはカラフルなこと。家の色とかもカラフルで、服なんかも原色が多くてカラフルで…。だから、とてもエネルギー感でカラフルだという印象が強かったです。

河 釜山で8年ぐらいの暮らしなんですけれども、釜山の生活でちょっと不便なところとか良いところとかあればご紹介してください。
大畑 そうですね。私は魚がとてすきなので、釜山は気に入っています。刺身とかたくさんあっていいですけど、文化施設はね、ソウルと比べると、第二の都市としてはもの足りない部分があって、そういうところが少し不便だと思いますけど。

河 長谷川さんの釜山滞在は大畑さんの十分の一ぐらいですけど、釜山の生活、どうですか。
長谷川 はい、今はとっても楽しいです。初めは友達もいなかったし、町のことも大学のこともよく知らなかったんですけど、今では道端の屋台のおばちゃんと顔見知りになりサービスを受けるまでになりました。(笑)釜山の町の雰囲気は好きだし、この町にしていると自然に元気が出てくる感じがします。僕はソウルにもよく行きますが釜山がもっと好きです。第二の故郷って感じですね。(笑)

河 伊藤先生はどうですか。来たばかりですけど。
伊藤 釜山の良いところは、景色がいいということでしょうか。海があって山があって自然が身近に感じられます。先日、金井山へ山登りに行きましたが、東京では近くにそんな場所はありません。私のアパートのそばには海がありますし、時間があるときは散歩して気持ちを落ち着けることができます。

河 そうですね。釜山の人はどうでしたか。
大畑 釜山とか、ソウルとか、関係なく韓国の人は親しくなると、とても親切ですね。そうでない人はすごく不親切ですね。親しくなると、いやになるくらい接近してくるんですけど、そうじゃないものすごく不親切で、そのギャップをなんか感じますね。ソウルとか釜山の人の心とは関係なく…。

伊藤 例えば、どういう面ですか。
大畑 道でなんか聞いても日本と比べてですけど、とても親切ですね。でも10年くらいいるわけですから、店員さ

んとか店の働いている人達のサービスというのは、だいぶ良くなりました。最初、来たときはものすごく不親切だったんですけど。

河 釜山の暮らしの中で記憶に残ることとかありますか。
長谷川 いろんなことがあって何から言ってもいいかわかりませんが、大学の友達、カルメギ会の友達、その他様々なきっかけで知り合った人達と一緒に酒を飲み、話をしたことですかね…。最近のことでは、友達、先輩に誕生日会を開いてもらったこと。喫茶店を貸しきり状態にしてお店の人まで一緒に祝ってもらった誕生日会は一生涯の思い出になると思います。

河 もしか、韓国、特に釜山を友達に紹介するなら。
長谷川 たくさんありますが、僕は個人的に広安里(クワンワンリ)のビーチが気に入ってます。最近、橋の建設が進み広い海が見渡せなくなり少し残念ですが夜遅くまでたくさんの人が浜辺でいろんな楽しみ方で賑やかに過ごしていて、いだけで楽しくなります。
他にはおいしい店かな？僕はサムギョブサルが大好きです。学生同士よく食べに行くんですが安いし腹いっぱい食べれるし、野菜も多くて、。ぜひ友達を連れて行ってたふく食べさせてあげたいです。
大畑 私はやっぱり<メウンタン>ですね。ソウルではなかなか食べられなかったの、<メウンタン>ですね。日本の人も食べたら、おいしいと言いますよ。

伊藤 すごく辛いんじゃないですか。
大畑 辛いんですけど、いろいろ旨味というのがあっていいです。

河 伊藤先生、韓国にいらしゃる前に韓国のことについて。
伊藤 特別、詳しい訳ではありませんが、韓国へは今までに2度、来たことがあったので、雰囲気は知っていました。本を読んだり、詳しい人に聞いたりしたこともありますし、でもやはりこちらで生活するようになっていろいろなことがわかってきました。

河 一応、今回は参加なさった三人はみんな大学のほうで教えたり、教わったりしていますが、韓国の大学生と大学についてちょっと考えてみますが、どうですか。伊藤先生、韓国の大学の雰囲気は。
伊藤 学生は礼儀も正しいですね。先生は尊敬すべき存在だと強く感じているような気がします。日本でも大学の先生

といえば、社会的地位は高いほうだともいますが、韓国ほどではありませんから。キャンパスで私のクラスの学生に会ったら、すごく丁寧に挨拶します。ベンチに座っていたら、起立して挨拶するくらい。でもおもしろいことにそれは私が担当しているクラスの学生だけです。他の学科やクラスの学生だとまったく関係ないって顔しています。その差がすごい。

河 どうですか。長谷川さんは学生の立場で感じる韓国の大学の雰囲気、日本の大学の雰囲気、どういう差があるんでしょうか。

長谷川 僕の前で通っている大学で比較しますと、まず大学に朝早くから夜遅くまで、そして休みの日もですが、学生がいっぱい多いと感じます。学校で授業がなくても自分の課の部屋に集まりギターを片手に友達と話したり、出前を取って一緒にご飯を食べたり、ドッチボールをしたり、あと、先輩と後輩の中が親密でヒョン、ヌナ(日本語で兄さん、姉さん)トンセン(日本語で弟)と呼んでいることは、始めはびっくりしました。けど、一緒にいて楽しいしとってもいい雰囲気だとも思いますよ。そうそう、夜なんかは焼酎を買って学校のマダン(広場)で校門がしまるぎりぎりの時間まで飲んでいる、ギターをBGMに！本当にいい感じですよ。大学に酒を持って来て飲むなんて余りなかったことだったから驚きました。酒をたくさんのお付き合い、人とのつながりが日本のそれと比べて全体的に強いかなと感じました。

河 もうひとつ、長谷川さんはこれから残りの留学についてどのようにしたいとかんがえていますか？

長谷川 うーん、僕が一番大切にしたいのはやっぱり人間関係を友達をつくることですかねえ。韓国と日本は近い国ですから留学が終わっても簡単に来ることが出来るから人間関係はもちろん、様々な経験、たくさん良い思い出、日韓両国どちらの立場も考えることの出来る柔軟な発想、あと、今中退している(笑)語学力というような今後の足掛かりとなるようなものを岩実につくっ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河 そうですね。大畑先生はやはり大学ばかりじゃなくて高校のほうでも教えているんですが、どうですか。
大畑 高校生はとてかわいそうなのが第一印象ですね。普通の受験高校とか、進学校の場合は、朝の7時ごろから夜の11時ごろまで勉強していますよ。私が教えている学生でも具合が悪くて寝ている人もよくいます。それでも、家に帰ら

ないでいたりしたんですからね。とてもかわいそうだなと思います。学生達も予備校みたいだと言っています。その反動で大学で入ってくると、やっぱり勉強しないで遊んじゃうみたいですね。日本もよくあるケースなんですけれども、韓国のほうがもっと強烈な受験競争ですね…。その大学と高校のギャップというのは、すごくあると思います。先生を尊敬するのはいいんですが、先生のほうも結構それに胡座をかいてい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気がしますね。そういうところが問題だと思います。

河 韓国の独特な大学文化があれば、紹介してください。

伊藤 私はまだ赴任したばかりなので、まだよくわかりませんが、学生たちを見てみると本当に人のつきあいが濃いなと感じますね。仲のいい友達同士は本当にいつも一緒にいるみたいです。お互い深いつながりができるという意味ではうらやましいんですが、その一方でそれ以外の人は上手につきあおうとしない感じがします。同じ学科でも同じ学年でも同じクラスでも関係ない人は関係ない。授業ではそういう関係を超えて誰とでも練習したり、グループで生活したりしてほしいんですが、結構みんな嫌がりますね。

河 それは韓国の大学生同士の交流の幅が狭いという意味ですか。

伊藤 狭いと感じるか、深いと感じるかは判断が分かれるところでしょうが、日本の大学生はそういう濃い人づきあいを避けたがるように思います。もっとさらっとつきあってみたい。特定のひととの濃い人間関係は煩いと感じているのではないのでしょうか。もっともそれは大学生に限ったことでなく、日本人全般に言えることかもしれませんね。

河 大畑先生の感じる韓国の独特な大学文化は、

大畑 10年前、私の来る前、学生運動というイメージが強くて、私が来た時も延世大学は学生運動の拠点でしたから、毎日のようにデモとか、機動隊の催涙弾、デモがあったり、それから当時は抗議の連続的な学生の自殺があったりしたんですけど。

その時と今を比べると非常に政治性というか、社会に接する関心というのが後退してきたんじゃないかな。それで、個人的な生活、個人的な趣味とか、そういう遊び、ファッションとかね、そういう方に行っちゃってそれが残念だね。もう少し社会的な関心は持ってほしいですね。

河 そうですね。韓国人の長所か、短所か、分らないですけど、政治については関心は高い方ですね。でも、今の大学生はほとんど政治に関心が低くなりましたけど、日本も同じじゃないでしょうか。60年代までは学生運動が激しかったんじゃないですか。そういう面では、一緒じゃないかなとおもいますが。

大畑 一緒だけど、日本になることが良いことではないということで、だから韓国の大学生が社会に対する関心を持っているのがいいなと思います。社会を変える力というのは、昔は学生運動でしたけれども、労働運動とか社会運動とか、社会も変わってきたけど、やっぱり学生は社会に対する関心を持ってほしいと思うんです。

河 韓国社会の中で学生運動の 이슈が変ったんです。私の学生であった1980年代は独裁に反対、民主化のために、学生運動が行われました。このごろはすこし民主化になっていると思うんですけど、ちょっと変った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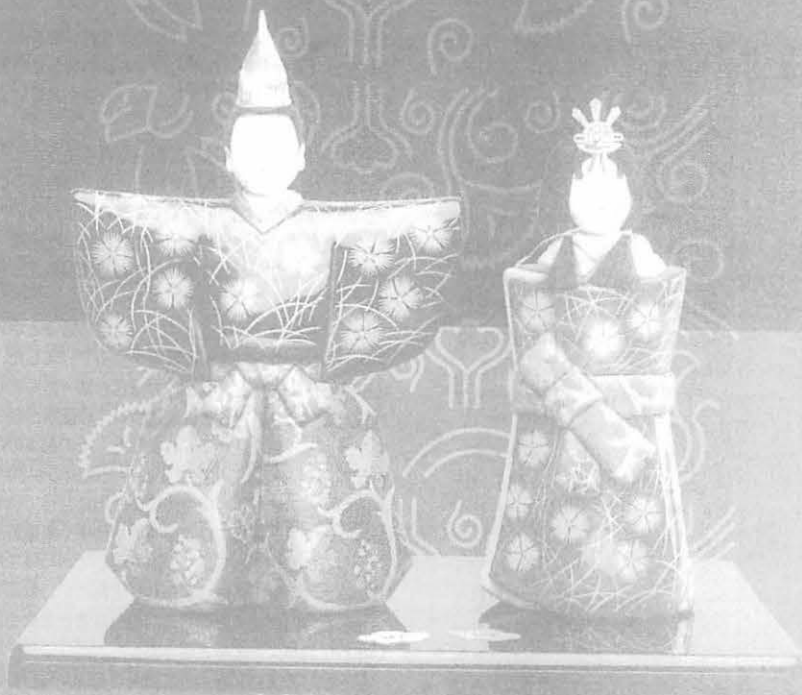
伊藤 それだけ平和になったということでしょうか。

河 だからノベル平和賞、もらったわけですね。
(一同笑い)

※ つづく



日本語弁論大会



- ◆ 日時: 2000年 11月 4日(土) 13:00~17:00
- ◆ 場所: 慶星大学校 情報館 小講堂
- ◆ 主催: 在釜山日本国総領事館・(社)釜山韓日文化交流協会
- ◆ 後援: 島根県・福岡市・下関市・(財)福岡国際交流協会
- 日本航空(株)釜山支店 KBS 부산방송총국
- MBC 부산문화방송 PSB 부산방송
- 釜山日報社 국제신문

優秀賞 受賞作

一番近い日本、対馬



金 美 秀

東亜大学校 日語日文学専攻 2年

今年の夏、ホームステイで韓国から一番近いという対馬に行くことになりました。ワクワクしながら船に乗って約50分。あっという間に対馬に着きました。「あ、こんなに近くに日本があったんだ。ソウルへ行くよりもずっと近い感じがするわ。」これが対馬に対する私の第一印象でした。

対馬での滞在の日数を重ねるにつれてその第一印象はより強く私の心に残りました。町を歩いていると標識や観光地の案内板が英語ではなく韓国語で書かれていてびっくりしたし、韓国との親善交流も活発でした。厳原の町の中心を流れる河川の堤防には朝鮮通信使の行列の絵が大きく描かれていました。その絵を再現した「アリラン祭り」というのがありますが、この祭りは対馬で一番大きいそうです。

このことだけでも対馬は我が国との歴史を大事にしていると思いました。昔から日本といえば、「近くて遠い国」と言われていましたが、それに反して対馬は一番近くて親しい所だと思いました。

ある日、ホストファミリーの涼子とゆき、リンリンと一緒に家の近くのみうだ海水浴場遊びに行きました。青くてきれいな海にキラキラと美しい砂浜が広がっていました。ぜんぜん水泳ができない私もほかの上手な友達と一緒に海へ飛び込んでみよう見真似で泳いでみたり、水をかけあったり楽しく遊びました。友達のように上手に泳ごうと、潜水したら、おしりだけブカブカと浮くおかしいポーズになりました。また、友達の泳ぐ姿を真似て泳いでみても水の中に沈みがちな私は友達は笑いながら「かなづち」というあだ名を付けてくれました。親切に友達から水泳を教えてもらった後、「かなづち」は何とか水面に浮くという奇跡を起こしました。

楽しくて充実した一日を過ごした私たちはシャワ室に行きました。少し歩いたらきれいな砂浜の上にゴ

ミが一つ落ちていました。「こんなきれいな砂浜なのに变だなあ」と思いながらゴミを拾いましたがそのゴミにはハンブルで「ボンイヨ」と書かれていました。

それで対馬の人たちは韓国製品もよく使うんだと思いました。もう少し歩いていると多くの韓国のゴミが目につきました。あわてて友達に「こっちは韓国製品をよく使う?」と聞きました。友達は「そうじゃなくて、海水浴場にときどき韓国のゴミが流れつくの」と答えました。

「どうしてだろう」と思いながら、家に帰るとホストファミリーのお母さんは新聞を読んでいた。私が「ただいま」と言うと、お母さんは「あんまりいい記事ではないけど、韓国についての記事が載ってる。」と新聞を見せてくれました。その記事の内容は外国から流れてきたゴミの中で韓国のが80%を占めていて、対馬の環境汚染の原因になっているというのです。写真では韓国製の冷蔵庫や家電製品さえも流れてきていて近くの海を汚している様子が写し出されていて私ははばかりさと同時に、対馬で感じた韓国に対する彼らの関心の高さや友情を思い出して胸がズキズキと痛みました。

私のはじめて感じたように対馬は韓国から一番近い日本です。近いから韓国のゴミも対馬まで流れていったのでしょうか?でも韓国との昔からのつながりを大切にし、毎年アリラン祭を行う対馬と、対馬の環境汚染の原因となっている我が国とはあまりにも対照的です。近ければ近いほど相手をもっと尊重して気をつけ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います。これからの未来もいい関係を保って行くためには私たちがみんな、努力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一番近くて仲のいい韓国と対馬になるために。

우수상 수상작

가장 가까운 일본, 대마도

김 미 수

동서대학교 일어일문학과 2년

이번 여름, 홈스테이차 한국에서 가장 가깝다는 대마도에 가게 되었습니다. 두근거림을 안으며 배를 타고 약 50분. 눈 깜짝할 사이에 대마도에 도착했습니다. '야! 이렇게 가까이에 일본이 있었구나! 서울에 가는 것보다도 훨씬 가까운 느낌이 드는 걸!' 이것이 대마도에 대한 저의 첫인상이었습니다.

대마도에서의 지내는 날들이 계속됨에 따라 그 첫인상은 보다 강하게 저의 마음에 남았습니다. 거리를 걸을 때 표지판이나 관광지의 안내문이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 쓰여져 있음에 놀라워 했고, 한국과의 친선 교류도 활발했습니다. 이즈하라의 마을 중심을 흐르는 하천 제방에는 조선통신사행렬도가 크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그림을 재현한 '아리랑축제'라는 것이 있습니다만, 이 축제는 대마도에서 가장 크다고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대마도는 우리나라와의 역사를 소중히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부터 일본이라 하면 가깝고 먼 나라라고 하였지만 그에 반해 대마도는 가장 가깝고도 친근한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날, 호스트패밀리인 료코와 그의 친구 유키, 린린과 함께 집 가까이에 있는 미우다해수욕장에 놀러 갔습니다. 푸르고 깨끗한 바다에 반짝반짝 아름다운 모래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전혀 수영을 하지 못하는 저도 능숙한 친구들과 함께 바다로 뛰어들어가 눈치껏 흉내내어 헤엄쳐보기도 하고 물장구를 치기도 하며 즐겁게 놀았습니다. 친구들과처럼 능숙하게 헤엄치려고, 잠수를 하면 엉덩이만 둥둥 뜨는 우스운 포즈가 되었습니다. 또 친구의 수영하는 모습을 흉내내어 헤엄쳐 보아도 물 속에 가라앉기 일쑤인 저에게 친구들은 웃으며 '쇠망치'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친절한 친구들에게 수영을 배운 뒤 '쇠망치'는 어쨌든 물에 뜨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즐겁고도 충실한 하루를 보낸 우리는 샤워장으로

갔습니다. 조금 걸었더니 깨끗한 모래밭 위에 쓰레기가 하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백사장인데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쓰레기를 주웠는데 그 쓰레기에는 한글로 '뽕이요'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마도 사람들은 한국 제품도 많이 쓰는구나하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더 걸으니 많은 한국 제품의 쓰레기가 발견되었습니다. 놀라며 이번에는 친구들에게 "여기사람들은 한국 제품을 많이 쓰니?"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친구들은 "그렇진 않구, 해수욕장에 가끔 한국 쓰레기가 많이 떠내려와"라고 대답했습니다.

왜 그럴까하고 생각하면서 집에 돌아가니, 호스트패밀리인 어머니께서는 신문を 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다녀왔습니다"라고 말하자 어머니는 "그다지 좋은 기사는 아니지만 한국에 대한 기사가 실렸다"며 신문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 기사 내용은 외국에서 떠내려온 쓰레기 중에서 한국 것이 80%를 차지하고 있고 대마도의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진에서는 한국제 냉장고 및 가전제품까지도 떠내려와 해변을 오염시키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어, 저는 부끄러운 마음과 동시에 대마도에서 느꼈던 한국에 대한 그들의 높은 관심과 우정을 떠올리고 가슴이 저러왔습니다.

제가 처음 느꼈던 것처럼 대마도는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입니다. 가깝기 때문에 한국의 쓰레기도 대마도로 떠내려 갔던 것이겠지요? 그러나 한국과의 옛날부터의 관계를 소중히 하고 해마다 아리랑축제를 하는 대마도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상대를 더욱더 존중하고 조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미래도 좋은 관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합니다.

가장 가깝고 사이좋은 한국과 대마도가 되기위해!!!

釜山日本人學校 學習發表會 開催



현재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과정까지 개설되어 있는 부산 일본인학교에서는 재학생 33명의 학습발표회를 개최합니다. 그동안 쌓아온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이번 발표회에는 학생들의 미술 작품 등으로 꾸며진 전시회를 비롯하여 연극, 합창 공연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본 학생들의 심성을 느끼며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따뜻한 시간에 일반인들도 초청하고 있으므로 많은 분들의 참관을 부탁드립니다.

日時: 2000년 11월 25일(土) 09:30~14:30
場所: 釜山日本人學校 講堂 3F / Tel. (051)753-4166

對馬「韓日觀光交流의 밤」開催

한일 교류사업의 연대를 강화하고 미래 기간사업이 될 관광분야의 진흥을 위해 설립된 對馬日韓交流協會에서는 관광교류축진단을 파견하여 「韓日觀光交流의 밤」을 개최하였습니다.

쓰시마(對馬)의 전통 북 연주와 무용 공연, 한국의 시물놀이 공연과 쓰시마 홍보물 상영 등으로 구성된 이날 행사에는 일본 관련 단체장 및 부산 시내 관광업계 종사자들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日時: 2000년 11월 9일(木) 18:30~20:30
場所: 코모도호텔 忠武홀
主催: 對馬日韓交流協會



在釜山日本國總領事館 日本 研修 參加 申請書 配付



재부산일본국총영사관에서는 국제교류기금에서 공모하는 일본 어교사 연수와 사서직, 연구직, 대학원생 등 전문 일본어 연수에 관한 일본 연수 프로그램 참가신청서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신청 마감은 12월 1일(금)로 영사관 내 공보문화원으로 제출해야 하며 이에 대한 심사 결과는 2001년 4월경에 통지될 예정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재부산일본국총영사관 공보문화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Tel. (051)469-3508



[청년회의 밤] 개최
일자: 1999년 12월 18일

겨울M.T
기간: 2000년 1월 22일~23일
장소: 연양 석남사

임시총회 개최
일자: 2000년 4월 15일

강연회 개최
일자: 2000년 4월 15일
강사: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高松久 이사장
장소: 협회 강의실

봄 수련회
일자: 2000년 5월 27일
장소: 금정산

정기총회 개최
일자: 2000년 6월 24일

가을 단합회 및 한국어강좌 수강생들과의 교류
일자: 2000년 10월 29일
장소: 금정산

스터디 실시
일자: 매주 토요일 14:00~16:00
장소: 협회 자료실



갈매기청년회 10기 임원단 조직도

회장	부회장	기획부장	총무부장
최수천	박주희	허원영	김용희
학술부장	편집부장	국제부장	조직부장
황용구	이상희	황근영	고기원



갈매기청년회는 (사)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의 산하 대학생 단체로서, 한일간의 대학생 교류 및 홈스테이 활동 등을 통해 양국 문화에 대한 상호이해 및 신뢰관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원 가입 및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ojac.or.kr>